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생활과학석사 학위논문

가구유형을 고려한 생애주기와
소비지출양식에 관한 연구

2014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최 홍 철

가구유형을 고려한 생애주기와 소비지출양식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최 현 자

이 논문을 생활과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 년 4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최 홍 철

최홍철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 년 6 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소비지출양식은 가계나 개인이 어떠한 생애주기 단계에 있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재무구조 역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재무설계에서 생애주기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생애주기와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전통적인 생애주기 모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생애주기 흐름을 따라 가계의 소비지출양식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표준가구, 즉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형의 가계의 일반적인 생애주기별 목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변화를 비롯한 여러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과거 소수에 불과했던 유형의 가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는 이러한 가구유형의 차이를 고려한 소비지출양식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통적 생애주기 흐름에 비추어 가계의 소비지출양식을 살펴보는 데에서 더 나아가 가구유형과 생애주기를 함께 고려하여 생애주기를 분류하여 봄으로써, 좀 더 세분화된 가계특성을 파악하고, 각 단계에 따라 소비지출양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2012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1]에서는 우리나라 가계는 가구유형을 고려할 때 생애주기가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가계의 특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문제 2]에서는 각각의 가구유형별로 생애주기에 따른 소비지출양식의 차이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연구문제 3]에서는 각 생애주기 단계에 속해 있는 가구유형에 따라 소비지출양식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 및 그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가계의 생애주기를 가구유형과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16개의 생애주기 단계로 분류해 볼 수 있었다. 가구유형은 결혼지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일인가구, 무자녀부부가구, 유자녀부부가구, 유자녀한부

모가구 등 4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생애주기는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장년기, 중년기, 은퇴기로 나누었으며, 중년기와 은퇴기 유자녀가구의 경우 자녀의 취업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다시 자녀독립전 가구와 자녀독립가구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생애주기 단계별 가계특성을 보면 가구주 직업은 장년기에는 관리전문직이나 사무직이 많은 반면 은퇴기에는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은 중년기에 가장 높아졌다가 은퇴기에는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자가 거주 비율은 생애주기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같은 은퇴기에 속할지라도 가구 유형에 따라 다시 집단을 나누어 가계의 특성을 살펴보면 일인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이나 자가거주율이 은퇴기 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한부모가구 역시 동일한 생애주기에 있는 유자녀부부가구와 비교할 경우 교육수준이 낮고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며, 자가거주 비율이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재무위험에 대한 대비가 취약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가구유형별 생애주기에 따른 소비지출양식에 차이가 있었다. 일인가구 및 무자녀가구의 경우 식료품, 주거수도광열, 보건 등과 같은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목에 대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의류신발, 교통, 통신, 오락문화, 음식숙박과 같이 여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비목들은 은퇴기로 갈수록 지출 비중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자녀부부가구의 경우 자녀가 대부분 학령기인 중년기에 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었으며, 비교적 일찍 자녀를 독립시킨 중년기 유자녀부부가구는 교육비 부담이 급감하는데다가 여전히 이전 단계와 유사한 수준의 소득을 유지하고 있어서 일인가구나 무자녀가구와 달리 주류 및 담배, 의류신발, 교통, 통신, 음식숙박 등과 같이 생계에 비필수적인 비목에 상대적으로 높은 지출비중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생애주기별 가구유형에 따른 소비지출양식에도 차이가 보였다. 장년기 일인가구는 주류 및 담배, 의류신발, 오락문화, 음식숙박 등에 대한 지출 비중이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무자녀부부 역

시 교통과 음식숙박에 대한 지출이 높게 나타나, 가정이나 육아에 대한 부담이 적은 가구유형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자녀 한부모가구는 장년기에는 유자녀부부가구와 교육비 지출액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중년기에는 유자녀부부가구에 비해 절반에 못 미치는 금액을 교육비에 지출하고 있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유자녀 한부모가구의 자녀가 유자녀 부부가구에 비해 교육의 기회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가구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은퇴기에는 유자녀부부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유형이 식료품, 주거수도광열과 같은 생활 필수재적 비목과 보건비에 대한 지출이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은퇴기 일인가구의 경우 이러한 비목들의 지출비중이 70%에 육박해 이들의 삶의 복지 수준이 현격히 저하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류한 생애주기 단계에 따른 소비지출양식을 살펴본 결과, 각각의 가구유형은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소비지출양식에 차이가 있었으며, 동일한 생애주기에 있는 가구라도 가구유형에 따라 소비지출양식에 차이를 보였다. 이는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에 있는 가계라도 가구유형이 다를 경우 소득과 소비지출양식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생애주기를 분류하고 그에 따른 가계 특성과 소비지출양식을 파악하는데 있어 가구유형을 함께 고려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하며 이를 통해 각 가계 특성에 적합하고 구체적인 재무목표 설정과 재무설계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어느 유형의 가계가 어떠한 생애주기 단계에서 더 재무적으로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정책적, 교육적 대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결론을 토대로 한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재무설계 측면에서 전통적인 생애주기의 흐름만이 아니라 가구유형을 고려한 생애주기를 근거로 한 재무설계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에 있는 가계라도 가구유형이 다를 경우 소득과 소비지출양식에 차이를 보이므로 재무설계를 하는 실무에 있어서 생애주기를 분류하고 그에 따른 가계 특성과 소비지출양식을 파악

하는데 있어 가구유형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된 가계 특성에 맞도록 재무설계 프로그램의 보완 또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적 측면에서 본다면 각 가계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적절한 재무설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적 재무교육과 더불어, 이혼이나 사별과 같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소득이나 지출과 같은 재무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취약해질 경우, 향후의 생애주기 흐름 속에서 삶의 복지수준의 저하를 최소화하고 어떻게 다시 재무 목표를 수립하고 자산을 배분할 것인지와 같은 사후적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취약 계층에 대한 입안과 정책시행이 필요한데, 가계특성과 소비지출양식을 고려해 볼 때 배우자가 있는 가구보다는 한부모 가구나 일인가구가, 장년기나 중년기에 비해 은퇴기로 갈수록 재무적으로 더 취약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예산에 좌우되는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적 성격의 정책과 함께 이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이 필요하다.

주요어 : 가구유형, 생애주기, 수정된 생애주기, 소비지출양식, 재무설계
학번 : 2012-21515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제기	1
제 2 절 연구목적 및 의의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4
제 1 절 생애주기 관련 연구 고찰	4
1. 생애주기 분류에 관한 선행연구	4
2. Murphy-Staples의 현대화된 생애주기 모형과 Gilly-Enis 모형	7
제 2 절 소비지출양식 관련 연구 고찰	16
1.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소비지출양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6
2. 가구유형에 따른 소비지출양식에 관한 연구	20
3. 생애주기에 따른 소비지출양식에 관한 연구	21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24
제 1 절 연구문제	24
제 2 절 연구방법	25
1. 조사대상	25
2. 변수의 정의	25
3. 분석방법	29
제 3 절 조사대상가계의 일반적 특성	30

제 4 장 연구결과 및 논의	32
제 1 절 가구유형을 고려한 생애주기	32
1. 가구유형을 고려한 생애주기 단계의 분류	32
2. 생애주기단계에 따른 가계특성	35
제 2 절 가구유형별 생애주기에 따른 소비지출양식...	40
1. 가구유형별 소비지출양식	40
2. 일인가구의 생애주기에 따른 소비지출양식	41
3. 무자녀가구의 생애주기에 따른 소비지출양식	42
4. 유자녀부부가구의 생애주기에 따른 소비지출양식	44
5. 유자녀한부모가구의 생애주기에 따른 소비지출양식 ...	46
제 3 절 생애주기별 가구유형에 따른 소비지출양식...	48
1. 생애주기별 소비지출양식	48
2. 장년기의 가구유형별 소비지출양식	49
3. 중년기의 가구유형별 소비지출양식	50
4. 은퇴기의 가구유형별 소비지출양식	53
제 5 장 결론 및 제언	55
제 1 절 요약 및 결론	55
제 2 절 제언	58
 참고문헌	 61

표 목 차

[표 3-1] 시대별 소비지출비목 변화	28
[표 3-2] 조사대상가계의 일반적 특성	31
[표 4-1] 가구별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38-39
[표 4-2] 가구유형별 각 비목 소비지출액 및 비중비교	40
[표 4-3] 일인가구 비목별 소비지출액 및 비중	42
[표 4-4] 무자녀가구 비목별 소비지출액 및 비중	43
[표 4-5] 유자녀부부가구 비목별 소비지출액 및 비중	45
[표 4-6] 유자녀한부모가구 비목별 소비지출액 및 비중	47
[표 4-7] 생애주기단계별 소비지출액 및 비중	48
[표 4-8] 장년기 비목별 소비지출액 및 비중	50
[표 4-9] 중년기 비목별 소비지출액 및 비중	52
[표 4-10] 은퇴기 비목별 소비지출액 및 비중	54

그 립 목 차

[그림 2-1] Murphy-Staples의 생애주기 모형	9
[그림 2-2] Gilly-Enis의 생애주기 모형	14
[그림 3-1] 가구유형에 따른 생애주기	32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선호도와 필요도는 가게 또는 소비자의 욕구가 발현된 것으로 소비행위를 선호도와 필요도를 고려하여 고찰하는 것은 결국 욕구에 기반을 두고 소비행위를 검토하는 것이고, 이러한 욕구에 의해 소비지출 비목을 재분류하고 재분류된 소비지출항목에 소득을 배분하는 방식이 곧 소비지출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김정현·최현자, 2002). 이러한 소비지출양식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나 그에 따른 소비자의 욕구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시점간의 소비지출양식을 비교하여 봄으로써 가게나 소비자의 선호도 및 필요도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소비지출양식은 또한 가게나 개인이 어떠한 생애주기 단계에 있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재무구조 역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재무설계에서 생애주기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 개인은 출생에서 사망에까지 이르는 생애주기 동안 몇 번의 중요한 시점을 지난다. 이러한 시점은 유아기, 아동기, 사춘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과 같이 생물학적인 연령에 따라 정의될 수도 있고, 취업이나 은퇴, 결혼, 출산과 같은 사건을 기준으로 정의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어느 기준에 따라 생애주기 단계를 분류하든지 그 시점에 큰 차이가 없었다. 누구나 일정한 때가 되면 취업을 하고, 또 일정한 때가 되면 결혼을 하고, 그렇게 또 일정한 때가 되면 출산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때’가 있었고 대부분은 그 ‘때’에 맞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초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 결혼을 하지 않는 일인가구도 증가하고 있다. 결혼의 지연은 “연기 증후군(Deferral Syndrome)”의 하나로, 생애주기의 단계를

결정하는 주요 사건의 발생 시점에 영향을 주게 되며(Teachman, Polonko, & Scanzoni, 1987), 생애주기 초기 단계의 지연은 생애주기 후기 단계에 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지연 현상은 결혼 적령기에 있는 성인들이 교육과 경력 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 정반대로 교육을 통해서도 직업적으로 미래를 찾을 수 없고 고용에 대한 불안이 커지기 때문이기도 하다(Glick, 1989).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남녀 평균 초혼 연령은 1992년 남성 약 28.0세, 여성이 24.9세에서 2013년 현재 남성은 32.2세, 여성은 29.6세로 각각 4년 이상 늦어졌으며, 혼인율은 1992년 남성 25.6%, 여성 25.3%에서 2013년 현재 15.1%, 여성 14.9%로 감소하였다. 가구구조 역시 달라지고 있는데,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한부모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출산을 미루거나 또는 아예 출산을 하지 않음으로써 가구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에 따르면 2인가구는 1990년 10.4%에서 2012년 29.0%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4인가구는 38.6%에서 35.3%로 감소하였다. 또한 아동이 없는 가구는 같은 기간 32.0%에서 59.5%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최근까지 표준가구의 구성형태였던 아동이 2명 있는 가구는 30.4%에서 18.0%로 감소하였다.

이처럼 과거 소수에 불과했던 가구유형이 이제는 우리나라 가계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을 생애주기라는 큰 틀 안에서 하나의 집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에 있는 가구라도 가구유형에 따라 집단을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류된 가계의 특성 및 소비지출양식을 살펴봄으로써 가계의 재무적 특성 및 소비지출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각 가계 특성에 맞는 재무목표 설정과 재무설계가 가능해 질 것이다. 또한 어느 유형의 가계가 어떠한 생애주기 단계에서 더 재무적으로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정책적, 교육적 대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우리나라 가계가 생애주기에 따라 소비지출양식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가계가 생애주기의 각 단계에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소비를 하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소비행동을 통해 각 생애주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가계의 생애주기 단계별 목표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애주기와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전통적인 생애주기 모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생애주기 흐름을 따라 가계의 소비지출양식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표준가구, 즉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형의 가계의 일반적인 생애주기별 목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변화를 비롯한 여러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과거 소수에 불과했던 유형의 가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는 이러한 가구유형의 차이를 고려한 소비지출양식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통적 생애주기 흐름에 비추어 가계의 소비지출양식을 살펴보는 데에서 더 나아가 가구유형과 생애주기를 함께 고려하여 생애주기를 분류하여 봄으로써, 좀 더 세분화된 가계특성을 파악하고, 각 단계에 따라 소비지출양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우리나라의 생애주기 관련 연구들이 대부분 전통적인 생애주기 모형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사회인구학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가구유형을 고려한 생애주기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지출양식을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생애주기 관련 연구 고찰

1. 생애주기 분류에 관한 선행연구

생애주기(Life Cycle)라는 개념은 자연과학에서 유래된 것으로, 가족을 유기체로 간주하여 과학의 개념을 가족의 동태파악에 적용시키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서병주·박혜경, 1984 재인용). 가족학 또는 소비자학에서 생애주기란 인간이 가족생활에서 경험하는 미혼, 결혼, 출산, 육아, 노후의 각 단계에 걸친 시간적 연속을 말하는 것으로, 가족은 결혼을 통해 형성되고 자녀를 출산하면서 발전, 확대되다가, 자녀가 결혼하여 분가함으로써 축소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러 가족이라는 생애의 일주기를 마치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생애주기라 할 수 있다(유영주, 1980).

생애주기, 특히 가족생애주기(Family Life Cycle)라는 개념은 영국의 경제학자 Rowntree(1903)로부터 기원한 것으로 보지만, 그것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1930년대 들어서면서부터였다. 생애주기의 단계는 다양한 기준을 중심으로 분류되는데, 자녀의 교육상태를 기준으로 분류하는가 하면(Kirkpatrick et al., 1934; Bigelow, 1942), 자녀의 연령(Loomis, 1936; Lansing & Morgan, 1955; Lansing & Kish, 1957; Rodgers, 1960), 부모와 자녀의 연령(Wells & Gubar, 1966; Duvall, 1971)을 기준으로 생애주기 단계를 분류하기도 한다. 생애주기의 단계는 이와 같은 분류 기준을 가지고 학자에 따라 3단계에서 24단계까지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Sorokin, Zimmerman & Galpin(1931)은 생애주기를 가족구성원을 기

준으로 하여 신흠부부, 한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부부, 한명 이상의 독립한 자녀가 있는 부부, 노년부부의 4단계로 분류하였으며, Kirkpatrick et al.(1934) 역시 가족생애주기를 4단계로 분류하였는데, 이들은 자녀의 교육상태를 기준으로 자녀 학령기전 가구, 자녀 초등학교 가구, 자녀 중등학교 가구, 자녀가 모두 성인인 가구 등으로 구분하였다. Loomis(1936)는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자녀가 없는 부부, 첫째자녀가 14세 이하인 가구, 첫째 자녀가 14세에서 36세인 가구, 노년가구의 4단계로 분류하였다.

Bigelow(1942)는 자녀의 교육상태를 기준으로 생애주기를 형성기, 출산 및 학령기전, 초등학교기, 중고등학교기, 대학생기, 복귀기, 은퇴기 등의 7단계로 분류하였다. Glick(1947)은 첫째 자녀와 막내 자녀의 출산 및 결혼, 그리고 부부의 사망을 생애주기 단계의 분류 기준으로 하여, 부부의 결혼, 첫째자녀출산, 막내자녀출산, 첫째자녀결혼, 막내자녀결혼, 남편 또는 아내의 사망, 남아 있는 배우자의 사망 등의 7단계로 생애주기 단계를 분류하였다. Lansing & Morgan(1955) 역시 생애주기를 7단계로 분류하면서, 가족의 생애주기를 독신기, 자녀가 없는 신흠부부, 막내 자녀 6세 이하인 젊은 부부, 막내 자녀 6세 이상인 젊은 부부, 자녀가 있는 45세 이상의 부부, 18세 이하의 자녀가 없는 45세 이상의 부부, 독신의 노인기로 나누었다. 이들의 연구는 특히 소비자의 재무구조와 생애주기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 경험적 연구로서, 생애주기에 따라 소득 및 소득의 주요사용비목, 자산과 부채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연구문제로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유영주, 1984에서 재인용).

Lansing & Kish(1957)는 개인의 연령을 중심으로 단계를 분류하는 것을 비판하고 개인이 속한 생애주기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생애주기를 독신 전기, 무자녀 젊은 부부, 막내 자녀 6세 이하의 젊은 부부, 막내 자녀 6세 이상의 젊은 부부, 유자녀 중년 부부, 18세 이하의 자녀가 없는 중년 부부, 독신 후기,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Rodgers(1960)는 첫 자녀만을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한 가구가 여러 단계에 중복되어 속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첫 자녀와 막내자녀의

연령과 역할을 함께 고려하여 생애주기 단계를 더욱 세분화하여 총 24단계로 분류하였다. Hill(1964)은 9단계로 구성된 가족생애주기를 제시하고, 가구 내 어린 자녀의 나이에 따라 가족 구조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Wells & Gubar(1966)는 부모와 자녀의 연령, 고용상태를 기준으로 독신단계, 무자녀 신혼부부, 막내 자녀 6세 미만인 등지기 I (Full Nest I), 막내자녀가 6세 이상인 등지기 II(Full Nest II), 미독립 자녀와 사는 중년 이상의 부부(Full Nest III), 자녀가 모두 독립한 가구주 은퇴전 부부(Empty Nest I), 자녀가 독립한 가구주 은퇴이후 부부(Empty Nest II), 은퇴전 독신, 은퇴이후의 독신 등 생애주기를 9단계로 분류하였다. Duvall(1971)은 부모와 자녀의 연령을 이용하여 무자녀 부부, 첫째 자녀 30개월 미만의 부부, 첫째 자녀가 2.5세-6세인 학령기전 가구, 첫째 자녀 6-13세 가구, 첫째 자녀 독립이후부터 막내자녀가 독립하는 시기까지의 가구, 막내자녀 독립이후부터 가구주 은퇴까지의 중년가구, 은퇴이후부터 부부가 모두 사망하는 시기까지의 가구 등, 총 8단계로 생애주기를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영주(1984)와 서병주·박혜경(1984)이 생애주기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유영주(1984)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가족생애주기 모형을 설정하여 총 6단계로 분류하고, ① 결혼에서부터 첫 자녀 출산까지 약 1년간인 23세에서 24세를 형성기, ② 첫 자녀 출산에서 첫 자녀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인 24세에서 30세까지를 자녀출산 및 양육기, ③ 첫 자녀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인 30세에서 42세까지를 자녀교육기, ④ 첫 자녀가 대학에 다니거나 취직, 군입대, 가사에 협조하는 시기인 42세에서 48세까지를 자녀성년기, ⑤ 첫 자녀 결혼부터 막내자녀 결혼까지인 48세에서 57세를 자녀결혼기, ⑥ 막내자녀 결혼이후 배우자가 사망하고 본인이 사망하는 시기인 57세 이후를 노년기로 규정하였다. 서병주, 박혜경(1984)은 부부의 연령, 결혼기간, 자녀의 교육상태 등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하고 결혼기간과 첫 자녀의 교육상태를 기준으로 총 7단계로 구분하였는데, 1단계는 자녀출산전 부부만의 가정, 2단계는 첫 자녀가 유아이거나 미취학인 가정, 3단계는 첫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가

정, 4단계는 첫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가정, 5단계는 첫 자녀가 대학교나 대학원에 다니는 가정, 6단계는 첫 자녀의 교육이 끝나고 아직 기혼자녀가 없는 가정, 7단계는 첫 자녀의 교육이 끝나고 기혼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전통적 생애주기는 단계의 수나 단계 분류의 기준에는 차이가 있지만, 가족 형성에서부터 여러 단계를 거쳐 부부의 사망에까지 일련의 흐름에 따라 진행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 가족 구조 및 사회적 변화가 급격해지면서 전통적 생애주기 모형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하였다. Glick & Parke(1965)는 각 단계의 생애주기 기간을 수정하고자 하였는데, 자신들의 연구에서 가족내 각 단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규정하였으나, 단계를 새롭게 추가하지는 않았다. Norton(1974)과 Glick(1977)은 여성의 출산의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이 앞당겨지고 있고, 가구당 자녀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별 기간에 변화가 있음을 주목하면서 기존의 생애주기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특히 Norton(1974)은 이혼율 증가가 향후 생애주기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Trost(1974)는 기존의 생애주기 모형들의 취약한 부분을 언급하였는데, 기존의 생애주기 모형들은 무자녀 커플을 배제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구를 설명할 수 없고, 자녀의 나이 변수를 지나치게 강조하며, 가구내 남성의 역할 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강조하면서도 여성의 역할변화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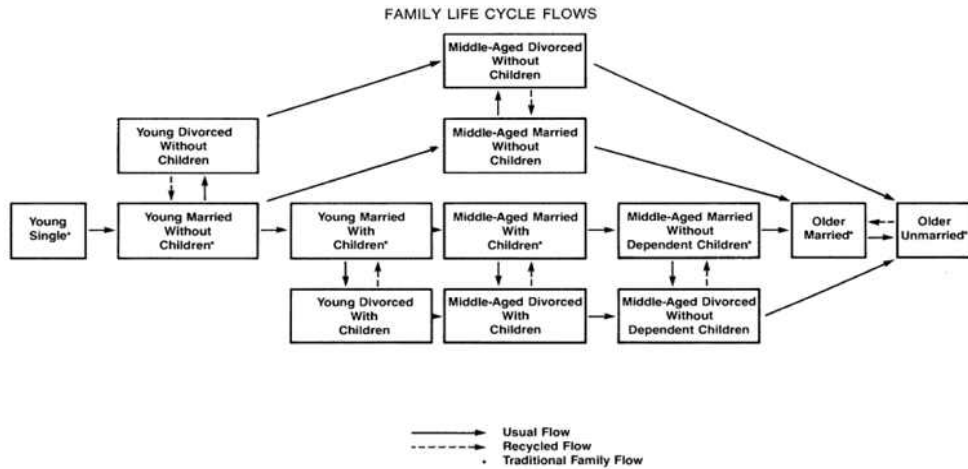
2. Murphy-Staples의 현대화된 생애주기 모형과 Gilly-Enis 모형

197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결혼의 지연, 한부모 가구, 미혼가구, 무자녀 가구의 증가와 같은 급격한 사회변화 및 가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Wells & Gubar(1966)를 위시한 전통적 생애주기 모형들은 이와 같은 가구유형이 배제됨으로써 사회적 변화상을 읽어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일부 학자들은 “Updating,” “Improving,” “Revising,” “Modernizing” 등의 용어와 함께 수정된 형태의 생애주기 모형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Bristor & Qualls, 1984; Gilly & Enis, 1982; Glick, 1977; Murphy & Staples, 1979).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두 모형이 Murphy-Staples(1979) 모형과 Gilly-Enis(1982) 모형이다. Murphy-Staples(1979) 모형은 전통적인 생애주기와 마찬가지로 시간적 흐름을 큰 축으로 생애주기 단계를 진행해 가는데 반해, Gilly-Enis(1982) 모형은 시간적 흐름에 더해 각 시점에 속해있는 다양한 가구유형을 나타내 주는 특징이 있다.

1) Murphy-Staples의 현대화된 생애주기 모형

당시의 많은 인구통계학적 변화들로 인해 미국의 전형적인 가구구조와 생활양식에 변화가 생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평균 가구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가구내 자녀수의 감소는 그만큼 자녀와 함께 사는 기간을 축소시키고, 따라서 Murphy & Staples는 자녀와 동거하는 기간은 더 이상 한 가구의 생애주기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아닐 수 있다고 보았다. 또 다른 변화는 결혼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특히 여성들이 결혼을 미루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로 인해 미혼 단계에 머무르는 남성들의 비율도 함께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또한 이혼율의 증가에도 주목하였는데, 당시에는 조기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부부지속기간이 짧아지고, 재혼율 역시 감소하고 있었다. 이에 Murphy & Staples는 중년이후 단계에서 이혼 후 재혼을 하지 않는 독신가구와 한부모가구가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변화를 근거로 Murphy & Staples는 당시로써는 “현대화된(Modernized)” 생애주기 모형을 제시하였다. Murphy & Staples의 현대화된 생애주기(Modernized Family Life Cycle)모형은 5개의 상위 단계를 기준으로 하여 총 13개의 범주로 분류되며, 이들은 전통적 생애주기와 같이 생애주기 흐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림 2-1]과 같이 생애주기 단계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2-1] Murphy-Staples의 생애주기 모형

이들은 새로운 생애주기를 제시하기에 앞서 몇 가지 부류를 단계 구성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법률혼이 아닌 상태의 동거가구는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일부 연구에서는 고려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그 비율이 1%가 채 되지 않고, 가족이 아닌 준가족 형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이유로 생애주기 단계 구성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미혼모 역시 이들의 모형에서는 제외되었으며, 전생애에 걸쳐 결혼을 전혀 하지 않고 독신으로 남아있는 일인가구도 배제하였다. 결혼은 했지만 별거중인 부부는 별도의 단계를 구성하지는 않았으며, 장년기 및 중년기의 사별한 가구도 포함하지 않았다. Murphy-Staples의 생애주기 모형은 크게 장년기(Young Stages), 중년기(Middle-Aged Stages), 노년기(Older Stages)에 따라 각 단계에 속한 범주들을 설명한다.

(1) 장년기(Young Stages)

첫 번째 단계는 ‘젊은 독신(Young Single)’으로, 정확하게는 가족의 단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은 가족을 형성하기 전에 이 단계를 지나기 때문에 이 단계를 가족의 생애주기의 출발점으로 본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약 18세를 이 단계의 시작으로 보고 있으며, 대학 졸업자가 증가하고, 결혼이 늦어짐에 따라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재정적 독립을 이룰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생활양식을 경험하기도 한다. 두 번째 단계는 35세 이하의 젊은 무자녀 부부로, 가족 형성기 또는 신혼기 부부는 첫 자녀를 출산하기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으로 비교적 짧게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은 피임의 증가,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의 변화, 직장 여성의 증가 등으로 인해 결혼 이후 출산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 단계 역시 확장될 것이라고 보았다. 두 번째 단계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젊은 무자녀 이혼가구가 된다. 이 유형의 가구의 생활양식은 이혼을 하면서 젊은 독신의 때로 돌아가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재정적으로 이혼 전에 비해 악화되기 쉽다. 이혼을 일찍 한 경우 다시 재혼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는 다시 젊은 무자녀 부부의 단계로 돌아가게 된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단계는 유자녀 젊은 부부 단계이다. 이 단계는 다시 하위에서 자녀의 연령에 따라 유아기, 4-12세의 아동기, 청소년기로 분류되며, 자녀의 존재는 일반적으로 가구내 생활양식과 재정상태를 급격하게 변화시킨다. 젊은 유자녀 이혼가구 단계에서는 대부분 여성이 자녀의 양육권을 갖게 되며, 따라서 여성은 자녀 양육을 위해 다시 직업을 갖게 되는 특성을 보인다.

(2) 중년기(Middle-Aged Stages)

이 단계의 가구주의 연령은 35세에서 64세까지이며, 6개의 하위 범주가 포함된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자녀부부 가구이다. 이 범주에 포함되는 가구수는 매우 적지만 점점 더 많은 부부가 자녀를 갖지 않는 추세로 볼 때 이 유형의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년의 무자녀 이혼가구는 중년 무자녀부부가 이혼함으로써 형성될 수도 있고, 젊은 무자녀 이혼가구상태에서 재혼을 하지 않고 중년까지 이어져 옴으로써 포함될 수도 있다. 중년의 유자녀, 특히 어린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하는 가구는 전형적인 가구유형으로, 매우 많은 가구가 이 유형에 속한

다. 이 가구유형의 두드러지는 생활양식은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이 반복된다는 점이며, 부모의 직업과 그에 수반되는 사회적, 시간적 업무에 따라 달라진다. 중년의 유자녀 이혼가구는 중년의 유자녀 부부가 이혼함으로써, 혹은 젊은 유자녀 이혼가구 형태를 계속 유지해 오면서 형성된다. 중년의 이혼으로 이 범주에 포함되는 가구의 경우 생활양식에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이는 여성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년 단계의 마지막 두 범주는 자녀가 모두 독립한 부부 및 자녀가 모두 독립한 이혼가구이다. 이는 Wells & Gubar(1966)의 ‘빈 등지기’에 상응하는 단계라 할 수 있으며, 가구규모가 갈수록 축소되어 가는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빈 등지기에 머무르는 기간은 점점 더 길어질 수 있다(Glick, 1977).

(3) 노년기(Older Stages)

생애주기의 마지막은 ‘노년(Older)’ 단계로 가구주의 연령은 65세 이상이며, 은퇴를 시작하는 시기이다. Murphy & Staples는 은퇴는 생애주기에 있어서 주요 생활양식인 동시에 중요한 재무적 변화이기 때문에 노년 단계는 은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시작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노년 단계는 크게 기혼, 그리고 이혼 또는 사별에 의한 독신 상태로 분류할 수 있다. 노년 독신 단계는 젊은 독신 단계와 마찬가지로 가족의 한 형태라 할 수 없지만, 생애주기의 흐름상 생애주기 단계의 종착점으로서 포함을 시키고 있다.

Murphy & Staples(1979)는 전통적 생애주기 모형이 여전히 유용한 도구임을 인정하면서도, 가족구성이나 생활양식의 변화에 대한 전통적 생애주기 모형의 설명력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기존의 생애주기 모형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결국 이들의 현대화된 생애주기(Modernized Family Life Cycle) 모형은 이혼여부와 자녀유무를 생애주기 단계 구성에 도입한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다. Murphy &

Staples(1979)는 미국 인구통계국 1970년 자료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생애주기 모형과 대표적인 전통적 생애주기 모형인 Wells & Gubar(1966)의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미국의 가구를 각각 분류하여, 자신들의 현대화된 생애주기모형에 의할 경우 누락되는 가구수가 더 적음을 보임으로써 본 모형의 실효성을 얻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자신들의 모형의 효능은 단순히 자신들이 분류한 단계에 속한 가구의 절대적 숫자가 얼마나 본 모형을 설명해 줄 수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구통계학적 흐름의 변화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가에 있다고 보았다. Wells & Gubar(1966)를 비롯한 전통적 생애주기 모형은 이혼가구나 무자녀 가구 등을 설명할 수 없고, 따라서 최근의 급격한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반해, 자신들의 현대화된 생애주기모형은 향후 이혼을 저하가 진정되고 가구규모가 다시 커진다고 해도 충분히 이러한 잠재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3) Gilly-Enis 모형

Gilly & Enis(1982)는 Murphy & Staples(1979)의 연구에서는 배제되었던 집단을 포함하고 대부분의 가구유형을 아우를 수 있는 좀 더 개선된 생애주기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소비행동의 지표로서 생애주기 단계를 매우 유용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비록 소비태도나 행동의 변화는 개인의 성장과정에 따라 나타나지만 소비행동의 변화들 대부분은 생물학적 연령보다는 가족 지위의 변화와 더 관련이 깊다고 보았다. 이들은 Murphy & Staples(1979)와 마찬가지로 일인가구, 이혼가구, 무자녀 가구의 증가, 결혼의 지연 등을 이유로 생애주기를 재정의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당시의 미국 사회의 흐름이 결혼, 출산, 자녀의 독립, 배우자의 죽음을 바라보는 전통적 생애주기의 관점과는 매우 달라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들의 많은 부분은 여성들의 생활양식에 대한 선택권이 증가한데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특히 Gilly & Enis는 자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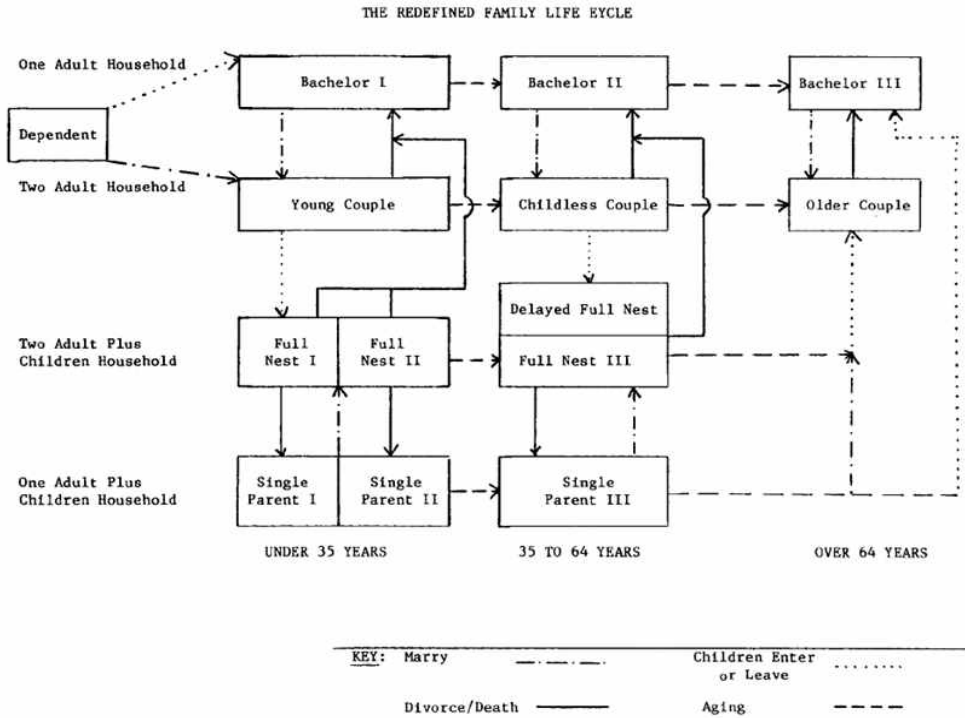
출산을 지연하거나 아예 출산을 하지 않는 가구가 증가하고, 한부모 가구의 가구주는 대부분 여성이며, 생애주기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가구주인 남성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지만 출산에 있어서 여성의 연령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가구의 생애주기 분류에 있어서 여성의 연령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전통적 생애주기와 Murphy & Staples(1979)의 현대화된 생애주기모형은 사회 변화와 가족의 형태 및 구성 변화에 따른 여성의 역할 변화를 모형에 수용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이들 모형과 달리 Gilly & Enis는 여성의 연령이 생애주기 단계 분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Gilly & Enis는 생애주기를 여성의 연령, 혼인지위, 자녀의 유무 및 연령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우선 가구내 여성의 연령을 기준으로 35세 미만을 장년기(Young), 35세-64세를 중년기(Middle-Aged), 65세 이상을 노년기(Elderly)로 구분하였다. Murphy & Staples(1979)와 기준 연령은 같으나, 가장 큰 차이점은 Murphy & Staples(1979)는 가구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였고, Gilly & Enis는 가구내 여성의 연령을 기준으로 했다는 데 있다.

Gilly & Enis의 생애주기 분류에 있어서 결혼은 법적인 결혼, 단순한 동거에 상관없이 장기간 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함께 사는 경우에는 모두 결혼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 생애주기 관점과 구별되는 중요한 기준이며, 당시의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들의 관점에서 독신은 과거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미혼 상태로 혼자 사는 가구를 의미한다. 또한 Gilly & Enis의 모형에서도 전통적 생애주기 모형이나 Murphy & Staples(1979)의 모형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유무는 중요한 기준이다. 이들은 자녀의 연령 중에서도 특히 6세를 여성의 직장 출퇴근 시간과 같은 여성의 시간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Gilly & Enis는 가구내 여성의 연령, 자녀의 유무, 혼인지위를 기준으로 세 단계의 연령 그룹과, 일인가구, 2인으로 구성된 부부 또는 동거가구, 유자녀 부부가구, 유자녀 한부모가구로 가구유형을 분류하였

다.



[그림 2-2] Gilly-Enis의 생애주기 모형

장년기단계에서 유자녀 부부 가구 및 유자녀 한부모가구를 다시 각각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막내 자녀 나이가 6세 이하면 유자녀 부부가구는 Full Nest I, 한부모가구는 Single Parent I, 막내자녀 나이가 6세 이상이면 유자녀 부부는 Full Nest II, 한부모가구는 Single Parent II로 분류하였다. 중년기 (Middle-Aged) 단계에서도 유자녀 부부가구는 장년기(Young) 단계와 마찬가지로 막내자녀 나이가 6세 이하이면 지연된(Delayed) Full Nest, 6세 이상이면 Full Nest III으로 분류하였으며, 여기서 지연된(Delayed) Full Nest는 자녀의 임신 및 출산의 지연에 의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노년기단계는 자녀들이 대부분

분 독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단계에는 독신가구와 2인부부 가구만 남게 된다고 하였다.

Gilly & Enis에 따르면 생애주기에 있어서 개인이나 가계의 중요한 변화 시점들을 단순히 연령에 따라 연대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그 중요한 변화의 시점들이 단계상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나, 자신들의 모형과 같이 시간의 흐름을 가로축에 놓고 가구 유형 등의 변화를 세로축에 놓고 단계를 세분화하여 보게 되면 이러한 개인 또는 가계의 중요한 변화 시점들을 파악하기 용이해진다고 하였다.

제 2 절 소비지출양식과 관련 연구 고찰

소비지출양식이란 “상호 연관된 소비지출비목들이 내재적으로 구조화되는 방식을 의미하며 이러한 소비지출양식은 가계가 주어진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그들이 설정한 목표와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정영숙, 2000). 이러한 소비지출양식은 개인이나 가계가 속해 있는 문화양식이나 집단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소비행동의 차이와 개인의 욕구 및 선호의 차이를 나타내 줄 수 있다(손상희, 1993). 결국 우리는 개인이나 가계의 소비욕구를 반영하는 소비지출양식을 살펴봄으로써, 가계의 소비행태와 복지수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해 진다(최현자, 2000).

1.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소비지출양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구희일·최석준(2009)도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간의 여가소비지출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서적 및 인쇄물 구입비와 교양오락용품기구 구입비, 교양오락서비스비용에서는 가구주의 직업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고, 주택소유여부가 가계의 여가소비지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비도시지역의 고등학교 수준의 가구와 전문대 이상, 대학원 수준 가구 간 서적 인쇄물 차이는 도시지역의 교육 수준 간 차이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양오락용품기구 구입비에서도 비도시지역의 일반가구와 노인가구의 차이가 도시지역의 일반가구와 노인가구의 차이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김기환·서병선(2008)도 2001년에서 2006년 사이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한국 농가구 소비지출패턴을 도시 가구와 비교하였는데, 식료품과 교통통신은 농가의 소득탄력성이 크고 주거광열, 교육교양오락, 기타에 있어서는 도시의 소득탄력성이 크게 추정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차

이는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의 확대와 연령구조의 노령화, 학력 격차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김민정·배미경(2002)은 1997년과 1998년 사이에 있었던 경제위기가 가계의 소비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본 연구에서 1997년과 비교하여 1998년에 대부분의 지출비목에서 소비가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가계소득 감소로 인한 지출 규모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몇 비목에서는 소비지출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였다.

김민정·최현자(2009)는 2002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도시가계를 핵심적중산층, 주변적중산층, 비중산층의 3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18개 지출 비목에 대한 소비지출규모와 소비지출구성비,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각각 분석하였다. 계층에 따라 선택재 지출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핵심적중산층의 경우 교육비 및 보충교육비의 비중이 다른 계층보다 월등히 높아 교육 수혜 기회의 차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성용·이계임(2003)은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10년간 한국농가의 소비지출구조를 분석하였는데, 한국 농가의 소비구조는 농가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점차 고도화되어 보건의료, 교통 및 통신비에 대한 지출비중이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농가의 소비지출은 경영주의 연령, 영농형태와 영농지대에 따라 지출규모와 항목별 지출비중이 상이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준이상수요체계모형을 통해 농가의 가계비 지출수요를 분석한 결과 광열수도비, 교육비, 교통통신비가 가격탄력적으로 나타났고, 교양오락비, 보건의료비는 지출탄력적이라고 하였다.

김숙향·김혜선(2004)은 선형화된 준이상수요체계 모델로 총소비지출액 변화 및 소비지출 비목별 물가변화가 자체비목의 지출비율 변화 및 타비목의 지출비율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주거광열비 물가상승이 자체 비목의 지출비율을 가장 많이 상승시키고 있었으며, 교통통신비 물가변화는 다섯 비목의 지출비율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양성강·최현자(2009)는 가계 유형별 소득과 비목별 소비지출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가계의 소비지출행동에서 심적 회계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고, 가계 소득계층에 따른 심적 회계의 양상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가계의 소득 유형이 비목별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의 구조적 특성 및 영향력의 크기가 다르고, 소득계층에 따른 가계 유형별 소득이 비목별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의 구조적 특성 및 영향력의 크기 역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가계는 소비지출을 할 때 심적 회계를 하고 있으며, 심적 회계의 양상은 소득계층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고 하였다.

양세정(2005)은 맞벌이가구의 소비지출유형별 가계경제구조를 분석하였는데, 가구소비실태 원자료를 사용하여 총소비지출에 대한 각 지출비목의 구성비를 산출하고, 군집분석을 통해 소비지출유형을 식별하였으며, 각 소비지출유형별로 소비지출, 소득, 저축 및 부채규모와 구조를 살펴보았다. 맞벌이가구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보았는데, 교육비지출유형이 32%를 차지하였고, 기타소비지출유형이 31.2%를 차지하였으며, 생필품 및 취업관련지출유형이 34.9%로 이 세 개의 유형이 맞벌이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동필·양세정(2004)은 도시가계연보 자료를 사용하여 1980년에서 2002년 사이의 한국가계의 소비지출패턴 추이를 분석하였다. 동기간 동안 가계의 총소비지출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고, 특히 외식비와 개인교통비가 각각 21.9배, 114.3배로 큰 폭의 지출규모 변화를 나타냈다. 세부지출비목들의 총소비지출에 대한 구성비는 식료품 비중이 16.7% 감소한 반면, 개인교통비가 7.6%, 교육비가 5.0% 증가하였다. 1980년에 비해 2002년에 소득계층간 소비지출 불평등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낮은 연령층에서는 교양오락비와 교통통신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40대가구는 교육비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차경욱(2003)은 도시근로자가구의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특성이 여가 소비지출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편모가구는 일반 가구보다 교양오락비 지출행동에 참여하는 비율과 지출액 수준이 모두 낮았고, 가구주의 연령은 모든 세부 비목의 지출액에 유의하게 부적 영향을 주었다. 가구주가 초대졸 이상인 가계는 고졸 이하인 가계보다 여

가에 대한 소비지출 경향이 높고, 액수도 높았으며, 가구주가 전문기술, 관리직인 가계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계가 교양오락비 지출액이 많았다. 월평균 소득은 모든 세부 비목의 지출여부와 지출액을 결정하는데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며, 교양오락비 지출 총액에 대한 소득탄력성은 1.16으로 나타났다.

하영원·정성희(2010)는 실험을 통하여 소비자의 과거지출패턴이 소비지출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소비자는 지출총액이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최고점 지출과 마무리 소액지출 추가에 따라 자신의 지출액을 다르게 판단하였고, 최고점 지출이 지출 순서상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도 지출액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수진·강이주(2007)는 2004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의 부동산 보유규모별 가계소비지출비율의 차이와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부동산 보유규모가 클수록 총자산중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졌으며, 부동산을 보유할수록, 보유규모가 클수록 가계의 금융자산보유액, 부채보유액, 순자산보유액,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액, 저축액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비와 외식비비율은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거나 보유규모가 작은 가계가, 교육비의 비율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보유규모가 큰 가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허은정·김우성(2003)은 2000년 도시가계연보 원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 가계간의 소비지출 및 저축을 비교하고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베이비붐세대 가계가 X세대 가계보다 세후 월평균 가계소득과 소비지출액이 유의하게 많았고 월평균 저축액은 두 세대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항목별로는 보건의료, 교통통신, 기타 소비지출을 제외한 8가지 항목에서 두 세대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소비지출 및 저축에 있어서 베이비붐 가계와 X세대 가계간 각각의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이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가구유형에 따른 소비지출양식에 관한 연구

박선옥·최현자(2008)는 미혼독신가구를 기혼유배우가구와 비교하여 소비지출과 저축 행태의 차이를 알아봄과 동시에 소비지출비목과 저축종류에 따라 미혼독신가구를 각각 유형화하였다. 소비지출유형에 따라서는 식료품비 우위형, 주거비 우위형, 교통통신비 우위형, 자기 투자형, 사회활동형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고, 저축 행태에 따라서는 안전지향형, 장기대비형, 위험대비형, 복합고려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별 저축 특성을 분석하였다.

양세정(2005)은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1997년도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분석을 통해 편모가계는 양부모가계와 달리 대부분의 가구특성은 물론이고 구매력을 제공하는 소득이나 자산과 같은 경제적 자원 변수도 소비지출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유일하게 가구원수, 즉 자녀의 수가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이성림·김기옥(2009)은 우리나라 독신가구의 여가활동 소비지출패턴을 연구하였는데, 독신가구의 여가활동 소비지출패턴을 구성하는 하위 차원은 개인여행, 단체여행과 운동, 강습, 독서와 공연관람, 오락시설 이용의 5가지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군집분석 결과는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는데, 다양한 여가활동을 골고루 즐기는 소비패턴보다는 거의 전적으로 한 종류의 여가활동에만 소비가 집중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독신가구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특성에 따라 여가활동 소비지출 패턴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고 하였다.

차경옥(2003)은 2001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통하여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소비지출행동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소비지출규모나 지출구성비, 소비지출에 관련되는 변수의 영향력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생애주기에 따른 소비지출양식에 관한 연구

Lansing & Morgan(1955)은 1)소득, 2)내구재, 자산, 부채에 대한 지출, 3)재무상태에 대한 주관적 감정이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가구주의 소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지만, 이러한 증가는 생애주기 단계와는 상대적으로 관련이 없었다. 반면 내구재 구매에 있어서는 생애주기의 어느 위치에 있느냐와 관련이 깊었으며, 따라서 연령보다는 생애주기 단계가 가계의 재무적 위치에 있어서 더 설명력 있는 지표일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Miller(1955)는 생애주기에 따른 광고의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광고의 효과는 생애주기 단계와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isher(1955)는 가족학에 있어서 종적인 연구를 촉구하는 동시에 생애주기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요인 규명을 할 것을 주장하였다. 생애주기 단계와 관련하여 가장 종합적인 연구는 Wells & Gubar(1966)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생애주기단계가 독립변수로 사용된 재무 및 소비행동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을 고찰하면서 가계의 소비지출양식에 있어서 단순히 연령보다는 생애주기 단계가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생애주기를 이용한 연구의 몇 가지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사별에 의해 배우자 없이 자녀와 사는 가구나, 노년기의 일인가구와 같은 가구들이 독립적으로 범주화되지 않으므로써, 이들의 소비지출양식이 구별됨 없이 하나로 설명되는 점을 한계점으로 언급하였다.

생애주기에 따른 소비자 행동의 차이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Wells & Gubar(1966)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수정된 생애주기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에너지 관련 지출(Fritzsche, 1981), 의류비 지출(Wagner & Hanna, 1983), 가정 난방비 지출(Frey & LaBay, 1983) 등과 같이 일부 비목에 대한 실증 연구나, 가족 의사결정 과정(Reilly et al, 1984)에 관한 연구 등이 행해지는데 그쳤다. 수정된 생애주기에 따른 소비지출 차이에 대해 Arndt(1979)와 Wagner & Hanna(1983)는 소득

변수가 통제되면 생애주기에 따른 소비지출에 차이가 없다고 본 반면, Fritsche(1981)와 Frey & LaBay(1984)는 소득 변수가 통제되더라도 생애주기에 따른 소비지출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Danko & Schninger(1990)는 Gilly-Enis(1982)의 생애주기모형이 다양한 비목들에 대해 소득변수 통제 여부에 따라 유의한지 측정해 보고, 수정 보완된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소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으며, 이 연구를 통해 비목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Wortzel(1977)은 젊은 독신(Young Singles)에 대한 연구에서 이들이 배우자를 찾거나 결혼을 준비하는 것에서 이제는 개인적 성장과 경험 축적 지향적인 활동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특히 소비품목을 보면 성관련 용품에 대한 구매가 감소하는 반면, 개인의 개성과 성취를 나타낼 수 있는 내구재 등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백은영(2009)은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가계의 재무구조와 저축성향을 분석하였는데, 라이프사이클 별로 주요 지출에 차이가 있었으며, 저축목적은 주요 지출을 잘 반영하고 있었고, 각 라이프사이클에 부합하는 저축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저축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양정선·김순미(2003)는 생애주기에 따른 가계의 교육비 지출을 분석한 연구에서 생애주기에서 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단계를 규명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가계의 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정운영·정세은(2010)은 2007년 실시한 국민노후보장패널 분석을 통해 저소득 노인가계와 고소득 노인가계의 소비지출구조 및 결정요인을 비교하였는데, 두 집단의 소비지출액은 고소득 가계가 2배 정도 크게 나타났으며, 비목별로도 고소득 가계의 지출규모가 더 컸지만, 비중으로 보면 식료품비, 주거 및 광열수도비 같은 필수재 비목의 비중은 저소득 가계가 더욱 높았다. 총지출액, 소비지출액, 비소비지출액에 대한 결정요인에서도 많은 경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저소득 가계와 고소득 가계의 노인 가구 소비활동은 소득규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대신 사회인구적 특성과 자산규모, 그 중에서도 부동산자산 규모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현진·이연숙(2007)은 유영주(1984)의 연구를 기초로, 노윤주(1996)의 연구와 동일하게 가족의 생애주기를 분류하고 그에 따른 도시 근로자가계의 소득 및 소비지출 구조를 분석하였는데, 도시 근로자 가계는 비경상소득을 제외한 모든 세부 항목별 소득액 및 모든 세부 비목의 소비지출액이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최옥금(2011)은 노인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의 소득구성을 살펴보고, 노인 가구의 소비지출 유형화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빈곤가구는 비빈곤가구에 비해 식비, 광열수도비의 비중이 높았고, 의류비, 교통통신비가 낮게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유형은 의료지출 중심형, 주거지출 중심형, 기본생활지출 중심형, 관계지출 중심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가운데 주거지출 중심형의 경우 다른 노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취약집단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계의 생애주기가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이렇게 분류된 생애주기에 따라 나타나는 가계의 특성 및 소비지출양식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우리나라 가계의 생애주기는 어떻게 분류되며, 그에 따른 가계의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가구 유형별 생애주기에 따른 소비지출양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생애주기별 가구유형에 따른 소비지출양식은 어떠한가?

제 2 절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12년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하였다. 가계동향조사는 1963년 처음으로 전국 도시 1,700가구를 표본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1975년 이후 현재까지 전 비목에 대하여 가계부 기장방식을 채택하여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조사하며, 발표는 분기 및 연간 발표를 하고 있다. 2012년 현재 표본규모는 부적격가구를 제외한 약 8,700가구이며, 조사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가구로, 농림어가, 외국인가구, 비혈연가구 및 기타 겸업가구 등 가구의 소득과 지출 파악이 곤란한 가구는 제외된다. 가구별 조사기간은 3년이며, 연동표본이기 때문에 가구별 교체에 있어서 시차가 있어서 실제 통계청에서 제공받는 원자료의 가구수는 10,400가구가 된다. 월별로 수집된 자료는 분기 및 연간으로 통합하여 월평균 가구당 가계수지를 분기 및 연간으로 발표를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12년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하였다. 전체 10,400가구 가운데 가구주의 조부모, 형제자매 등이 동거하는 가구 및 조손가구, 극단값을 제외한 9,386가구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으며, 가중치를 적용한 전체 가구수는 14,780,129가구이다.

2. 변수의 정의

1) 생애주기

(1) 장년기

가구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가구주 연령이 만 39세 이하인 단계를 장년기라고 한다.

(2) 중년기

가구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이상, 만 59세 이하인 단계를 중년기라고 한다.

(3) 은퇴기

가구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가구주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단계를 은퇴기라고 한다.

2) 가구유형

(1) 일인가구

일인가구는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가구원수가 1명인, 가구주 1인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한다. 자료의 특성상 미혼독신과 이혼에 의한 독신, 사별에 의한 독신 등의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인가구에 미혼 독신, 이혼 또는 사별 등으로 인해 단독으로 거주하는 가구를 모두 포함한다.

(2) 무자녀부부가구

무자녀부부가구는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 등, 부부 2인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한다. 무자녀부부가구에는 처음부터 출산을 전혀 하지 않은 2인 부부가구와 모든 자녀가 결혼 후 분가, 독립하여 부부 2인만 남게 된 가구가 포함된다. 자녀의 결혼 및 분가로 인해 부부 2인만 남게 된 경우 생애주기 단계의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따로 분리하여 하나의 단계를 구성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주어진 자

료의 한계 상 무자녀부부가구에 포함하여 하나의 범주로 구성한다.

(3) 유자녀부부가구

유자녀 부부가구는 동거, 비동거에 관계없이 배우자가 있고, 동거 자녀 또는 미혼의 비동거 자녀가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동거 자녀에는 미혼 자녀와 기혼자녀가 모두 포함되며, 자료의 한계상 기혼의 비동거자녀는 자녀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4) 한부모가구

한부모 가구는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이혼에 의한 것인지, 사별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배우자가 없는 모든 가구가 포함되며, 배우자가 별거인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녀의 기준은 유자녀부부가구와 동일하다.

(5) 자녀의 독립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경제적인 자립을 자녀의 독립으로 규정한다. 자녀의 경제적 자립은 자녀의 취업여부로 판단하며, 자녀의 취업여부를 기준으로 모든 자녀가 취업을 한 가구를 자녀독립가구로, 가구내 미취업 자녀가 있을 경우를 자녀 독립전 가구로 정의한다.

3) 소비지출비목

1982년 이전까지는 소비지출을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잡비 등 5대 비목으로 조사하였고, 1982년-1994년은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가사용품,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지출의 9대 비목으로 세분하여 조사하였으며, 1995년 이후에는 ‘교육, 교양

오락'을 '교육비'와 '교양오락비'로 구분하여 10대 비목으로 확대하였다. 2009년에는 다시 한 번 분류체계를 개편하였는데, 품목별로 소비지출 항목을 분류하던 것을 COICOP(목적별 소비지출 분류)에 기반을 둔 12대 분류체계로 재편하였다. 식료품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와 주류 및 담배로, 교통통신은 교통과 통신으로 각각 세분화된 반면, 주거와 광열수도는 주거 및 수도광열이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합쳐졌다. 또한 식료품의 하위 항목이었던 외식비와 교양오락의 하위항목이었던 숙박이 2009년에는 음식숙박으로 새로운 항목으로 묶였으며, 가구가사용품은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피복신발은 의류 및 신발, 보건의료는 보건, 교양오락은 오락문화, 기타소비지출은 기타상품 및 서비스로 항목명의 변화가 있었다.

2009년 소비지출 항목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12대 분류체계의 각 하위 세부항목에도 변화가 있었다. 2009년 이전의 분류체계에서는 교육의 하위항목이었던 중고생 교재와 참고서, 유치등 학습교재와 같은 교재비 등이 2009년 이후의 분류체계에서는 오락문화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되었으며, 역시 교육의 하위 항목이었던 독서실비도 오락문화의 하위 항목으로 개편되었다.

[표 3-1] 시대별 소비지출비목 변화

1982년 이전 (5대 비목)	1982년-1994년 (9대 비목)	1995년-2008년 (10대 비목)	2009년 이후 (12대 비목)
식료품비	식료품	식료품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거비	주거	주거	주류 및 담배
광열비	광열.수도	광열.수도	주거 및 수도광열
피복비	가구.가사용품	가구.가사용품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잡비	피복.신발	피복.신발	의류 및 신발
	보건.의료	보건.의료	보건
	교육.교양오락	교육	교통
	교통.통신	교양.오락	통신
	기타소비지출	교통.통신	오락.문화
		기타소비지출	교육
			음식.숙박
			기타상품 및 서비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조사대상가계의 일반적 특성과, 가구유형 및 생애주기별 가구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가구유형별 생애주기에 따른 소비지출양식의 차이 및 각 생애주기 단계에서의 가구유형에 따른 소비지출양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이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집단을 판단하기 위한 사후검정으로는 Duncan검정을 실시하였다.

제 3 절 조사대상가계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총 표본은 14,780,129 가구이며, 조사대상 가계의 일반적 특성은 [표 3-2]와 같다. 가구주 성별이 남성인 가구는 10,574,241가구(71.5%), 여성인 가구는 4,205,888가구(28.5%)였으며, 가구주 평균 연령은 51.71세로, 60대(28.8%), 40대(28.2%), 50대(22.1%), 30대(18.9%) 순으로 분포를 보였으며, 30세 미만의 가구주는 2.0%였다. 가구주 교육수준은 고졸(35.2%)이 가장 많았으며, 중졸이하(26.6%), 대졸(23.0%), 전문대졸(10.4%), 대학원이상(4.8%)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직업으로는 기능직이 23.6%로 가장 많았고 무직이 20.5%로 뒤를 이어 높게 나타났으며, 관리전문직이 16.9%, 서비스판매 14.1%, 사무직과 단순노무직이 각각 12.2%를 차지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가계의 월평균소득은 약 350만원이었으며, 500만원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가구가 22.5%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300만-399만원이 17.5%, 200만-299만원은 16.4%, 100만-199만원이 15.8%였으며, 100만원미만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가구는 14.6%, 400만-499만원의 소득을 버는 가구는 13.1%였다. 전체 조사대상 가구 가운데 맞벌이를 하는 가구는 29.7%를 차지하였다. 조사대상 가구의 85.5%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거주형태로는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62.4%)가 가장 많았고, 전세는 18.5%, 보증부월세로 거주하는 가구는 13.4%였다. 평균 자녀수는 1.25명이었으며, 2명의 자녀가 있는 가구가 38.8%로 가장 많았고, 자녀가 없는 가구도 30.7%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자녀가 1명인 가구는 22.6%,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7.9%를 차지하였다.

[표 3-2] 조사대상가계의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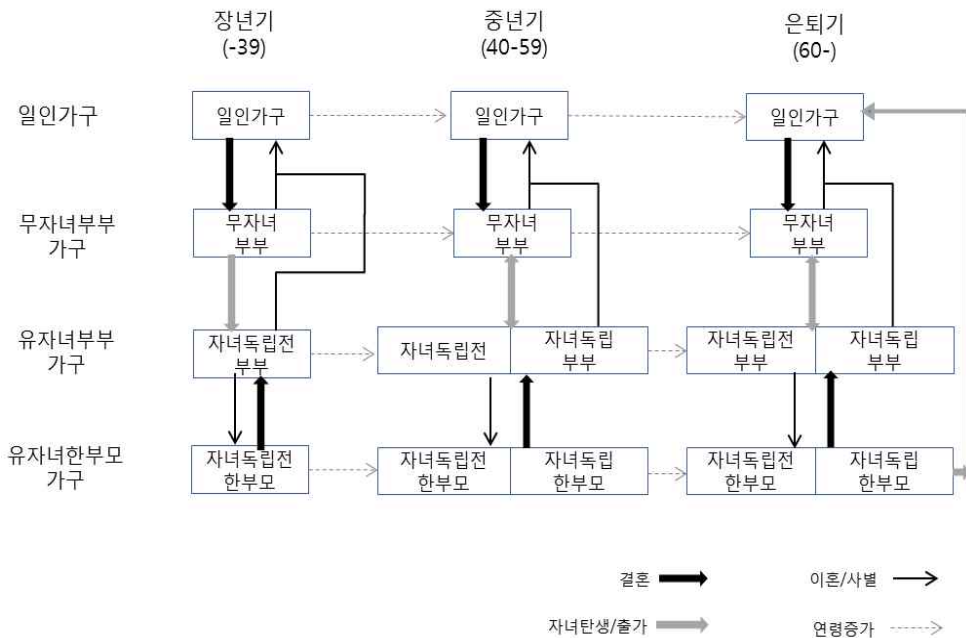
특성	구분	빈도(가구수)	백분율(%)
가구주 성별	남	10,574,241	71.5
	여	4,205,888	28.5
가구주연령	30세 미만	295,734	2.0
	30-39세	2,787,657	18.9
	40-49세	4,174,015	28.2
	50-59세	3,271,903	22.1
	60세 이상	4,250,820	28.8
	평균(S.D.)	51.71(13.6)	
가구주 교육수준	중졸이하	3,926,747	26.6
	고졸	5,205,048	35.2
	전문대졸	1,537,805	10.4
	대졸	3,396,819	23.0
	대학원이상	713,710	4.8
가구주 직업	관리전문직	2,499,513	16.9
	사무직	1,798,307	12.2
	서비스판매	2,084,604	14.1
	기능직	3,486,059	23.6
	노무	1,808,884	12.2
	무직	3,030,196	20.5
	기타	72,567	0.5
월평균소득	100만원미만	2,162,475	14.6
	100만-199만	2,334,841	15.8
	200만-299만	2,428,279	16.4
	300만-399만	2,585,775	17.5
	400만-499만	1,936,188	13.1
	500만원이상	3,332,572	22.5
	평균(S.D.)	3,515,111(2,459,067)	
맞벌이 여부	예	4,391,512	29.7
	아니오	10,388,617	70.3
거주형태	자가	9,223,053	62.4
	전세	2,735,870	18.5
	보증부월세	1,979,279	13.4
	기타	841,928	5.7
거주지역	도시	12,630,220	85.5
	읍면	2,149,909	14.5
자녀수	없음	4,536,038	30.7
	1명	3,337,495	22.6
	2명	5,738,262	38.8
	3명 이상	1,168,334	7.9
	평균(S.D.)	1.25(1.0)	

제 4 장 연구결과 및 논의

제 1 절 가구유형을 고려한 생애주기

1. 가구유형을 고려한 생애주기 단계의 분류

Murphy & Staples(1979) 및 Gilly & Enis(1982)의 생애주기 분류 모형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가구유형을 고려한 생애주기 단계를 도식화 하였다. 생애주기는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크게 장년기, 중년기, 은퇴기로 분류하였으며, 가구유형은 혼인지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일인가구, 무자녀 2인부부가구, 유자녀 부부가구, 유자녀 한부모가구의 4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생애주기와 가구유형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그림 3-1] 가구 유형에 따른 생애주기

1) 가구주 연령

Murphy & Staples(1979)와 Gilly & Enis(1982)는 35세 미만을 Young Stages, 35-64세를 Middle-Aged Stages, 65세 이상을 Older 또는 Elderly의 3단계로 크게 분류하였다. 다만 Murphy & Staples는 가구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Gilly & Enis는 가구내 여성의 연령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urphy & Staples의 기준에 따라 성별에 상관없이 가구주의 연령을 분류 기준으로 하였으며, 두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세 단계로 범주를 나누되, 분류 기준이 되는 가구주의 연령에는 차이를 두었다. 즉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 연령 39세 이하를 장년기, 40세-59세를 중년기, 60세 이상을 은퇴기로 명명 및 분류하였다. 2013년 현재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이 32.2세로 1992년에 비해 약 4년 이상 늦어졌고, 6세 이하의 학령기 전 자녀의 양육이 대부분 중년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가구주 연령 39세 이하를 장년기로 규정하였다. 은퇴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만 65세를 기준으로 하여 중년기와 노년기를 구분하지만, 본 연구는 가계의 소비지출양식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서, 소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은퇴시점을 고려하여 만 60세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의 기간을 은퇴기로 하였다. Murphy & Staples(1979) 역시 생애주기 단계를 분류하면서, 은퇴는 주요 생활양식인 동시에 중요한 재무적 변화이기 때문에 노년기는 은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시작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2) 혼인지위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유무를 기준으로 일인가구, 부부가구, 한부모 가구로 분류하였다.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별도로 이혼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있으며, 배우자 유무 및 배우자가 있다면 동거 배우자인지 비동거 배우자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만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없고 가구원이 1인인 가구를 일인가구,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배우자의 동거, 비동거 여부의 구분 없이 모두 부부가구로, 배우자가

없으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를 한부모 가구로 규정하였다.

3) 자녀유무

자녀의 유무를 기준으로 유자녀가구와 무자녀가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동거자녀 및 미혼의 비동거자녀가 몇 명인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동거자녀는 다시 기혼자녀와 미혼자녀로, 미혼의 비동거자녀는 학업자녀, 취업자녀, 기타자녀로 분류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거자녀와 미혼 비동거자녀수를 합산하여 자녀의 유무를 판단하였으며, 가계동향조사에서 혼인하여 분가한 자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녀수 합산에서 제외되었다.

4) 자녀의 독립

자녀의 독립여부는 가계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자녀의 독립은 자녀가 한 가계에서 완전히 분리, 독립하여 나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만 본 연구에 사용된 가계동향조사는 결혼하여 분가한 자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동거자녀에 대한 일부 정보, 그리고 미혼이면서 취업, 학업, 기타의 비동거 자녀수가 몇 명인지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학진학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자녀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바로 독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등록금과 같이 부모에게 재정적 도움을 받는 등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독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녀의 경제적인 자립을 자녀의 독립으로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녀의 취업여부를 기준으로 모든 자녀가 취업을 한 가구를 자녀독립가구로, 가구내 미취업 자녀가 있을 경우를 자녀 독립전 가구로 구분하였다.

2. 생애주기 단계에 따른 가계특성

전체적으로 보면 장년기에서 은퇴기로 갈수록 여성 가구주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표 4-1] 참조),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젊은 세대로 올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 가구주의 직업은 장년기에는 관리전문직이나 사무직이 많은 반면 은퇴기에는 단순 노무직 및 기타가 약 46.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가구소득은 중년기에 가장 많고 은퇴기는 약 203만원으로 중년기 소득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하고 있다. 거주형태는 장년기에서 은퇴기로 가면서 자가 거주 비율이 증가하며, 은퇴이후에는 도시 거주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생애주기 단계에서 가구유형별로 가계의 특성을 살펴보면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에 있는 가구라 할지라도 가구유형에 따라 가계특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장년기의 일인가구는 가구주 평균 연령이 약 32세로 가정을 이루기 전 단계라 할 수 있으며, 교육수준은 70%이상이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임을 알 수 있다. 장년기 일인가구의 약 70%는 관리전문직이나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도시 거주율은 94.5%로 전체 생애주기 단계에 속해 있는 가구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거주형태는 같은 장년기의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전세 및 보증부월세 거주 비율이 높은 편이다. 장년기 무자녀가구는 가정 형성 이후 초기 단계로 대부분의 신혼부부가 이 범주에 속하게 된다. 이들의 가구주 교육수준은 전문대졸 이상이 80%이상으로 고학력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맞벌이 역시 전체 가구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전세 거주비율 역시 약 39%로 전체 가구유형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장년기 유자녀 부부는 무자녀 부부일 때와 비교해서 맞벌이를 하는 비율이 감소하는데, 이는 이 가구유형의 평균 자녀나이가 첫째 5.7세, 막내 3.5세로, 이 연령대의 자녀는 상대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부부 중 일인은 육아를 전담하게 되기 때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맞벌이 비율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유자녀 부부단계에서는 가계소득도 일정액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가거주

비율도 높아진다. 장년기 유자녀한부모 가구는 여성 가구주 비율이 65.7%로 장년기의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여성 가구주 비율이 높다. 그러나 유자녀한부모 가구만 놓고 보면 중년기나 은퇴기에 비해 장년기의 여성 가구주 비율은 가장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가구주 교육수준은 고졸이 약 63%로, 장년기의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주 직업 역시 관리전문직이나 사무직보다는 서비스판매, 노무/기타에 종사하는 비율이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자가 거주 비율은 장년기 가구유형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년기 일인가구의 여성가구주 비율은 약 54%로 남성 가구주 비율보다 높으며, 교육수준은 고졸이하가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가구주 소득은 약 176만원으로 중년기의 다른 가구유형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자가거주율 역시 중년기 가구유형 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중년기 자녀독립전의 유자녀부부 가구는 가장 높은 평균 가구소득을 보인다. 이들은 중년기 가구유형 가운데 관리전문직 및 사무직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비율도 중년기 내에서 가장 높다. 중년기 자녀독립전의 유자녀부부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장년기에 비해 증가하는데, 이는 장년기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나이를 고려해 볼 때 첫째 자녀 평균 나이가 16.3세, 막내 자녀 평균 나이가 13.5세로 장년기에 비해 육아에 드는 수고는 감소하는 반면 교육비 등의 지출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유자녀한부모 가구의 여성 가구주 비율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가구주 직업은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높으며, 자가 거주 비율은 일인가구를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은퇴기의 일인가구 및 무자녀가구는 가구주 평균 연령이 각각 71.6세, 70.1세로 전체 가구유형 가운데 가장 높으며, 생애주기의 가장 끝단으로 빈 등지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은퇴기 일인가구의 평균 가구소득은 약 89만원으로 전체 가구유형 가운데 가장 적고, 자가 거주 비율은

생애주기에 따라 높아지지만, 은퇴기 내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장년기 일인가구가 도시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것과 반대로 은퇴기의 일인가구는 도시거주 비율이 전체 가구유형 가운데 가장 낮다. 모든 자녀가 독립한 은퇴기의 유자녀부부는 은퇴기에서 가장 높은 소득수준과 자가거주 비율을 나타낸다. 은퇴기의 유자녀한부모 가구는 여성 가구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들 유형의 가구주 교육수준은 중졸이하가 70%이상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가구유형에 따른 차이라기보다는, 은퇴기 유자녀 한부모 가구의 가구주가 대부분 여성인 점과, 이들의 연령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여성의 교육기회가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 직업으로는 자녀 독립전에는 노무/기타, 모든 자녀가 독립한 후에는 서비스판매에 종사하는 비율이 은퇴기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1] 가구별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N=14,780,129)

(단위: %)

	전체			장년기			
	장년기 (20.9)	중년기 (50.4)	은퇴기 (28.7)	일인가구 (3.3)	무자녀가구 (2.0)	유자녀부부 (14.9)	유자녀한부모 (0.6)
가구주 남	82.6	75.8	56.1	51.4	91.0	90.2	34.3
성별 여	17.4	24.2	43.9	48.6	9.0	9.8	65.7
가구주연령(세)	34.7	48.7	69.4	31.7	33.4	35.5	37.1
(S.D.)	(3.7)	(5.4)	(6.5)	(5.1)	(3.2)	(3.0)	(2.0)
가구주 중졸이하	0.8	16.2	63.4	0.8	0.6	0.8	0.0
교육수준 고졸	28.4	43.7	25.3	26.3	18.4	28.9	63.4
전문대졸	22.8	10.4	1.5	22.4	27.8	22.2	22.9
대졸	39.3	24.5	8.6	45.3	42.6	38.5	10.7
대학원이상	8.9	5.2	1.3	5.2	10.6	9.6	3.0
가구주 관리전문직	32.3	20.5	8.6	37.8	30.3	25.7	13.6
직업 사무직	24.5	14.8	3.8	31.4	25.3	21.7	20.5
서비스판매	15.9	18.5	18.1	12.8	18.3	15.7	27.1
기능직	22.8	34.7	22.6	15.2	18.0	25.1	20.1
노무/기타	4.5	11.5	46.7	2.9	2.3	4.0	29.2
가구소득(천원)	3,742	4,264	2,036	2,034	4,031	4,153	1,897
맞벌이여부 예	30.0	40.4	10.8	-	56.3	34.2	-
아니오	70.0	59.6	89.2	-	43.7	65.8	-
거주형태 자가	44.7	63.4	73.5	22.5	43.8	50.9	16.0
전세	31.6	17.4	10.9	29.1	38.7	31.3	28.7
보증부월세	14.9	8.9	13.4	39.5	12.5	10.4	38.2
기타	8.8	10.3	2.2	8.8	5.0	7.4	17.1
거주지역 도시	85.4	86.8	83.1	94.5	88.6	83.0	83.9
읍면	14.6	13.2	16.9	5.5	11.4	17.0	16.1
자녀나이(세) 첫째	5.8	17.8	35.3	-	-	5.7	11.6
막내	3.7	15.2	34.4	-	-	3.5	9.3
자녀수(명) 비동거포함	1.3	1.7	0.5	-	-	1.8	1.8
동거	1.3	1.4	0.3	-	-	1.7	1.2

* p<.05 ** p<.01 *** p<.001

[표 4-1] 가구별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N=14,780,129)

(단위: %)

		중년기						은퇴기				
		일인 가구 (3.8)		자녀독립전		모든자녀독립		일인 가구 (10.0)		자녀독립전		모든자녀독립
				무자녀 가구 (2.5)	유자녀 부부 (34.3)	유자녀 한부모 (3.5)	유자녀 부부 (4.6)			유자녀 한부모 (1.7)	유자녀 부부 (2.1)	유자녀 한부모 (0.9)
가구주	남	46.1	71.5	87.8	23.9	74.5	15.9	16.1	86.6	83.6	16.9	90.1
성별	여	53.9	28.5	12.2	76.1	25.5	84.1	83.9	13.4	16.4	83.1	9.9
가구주나이(세)		49.5	52.6	47.2	48.9	54.8	53.7	71.6	70.1	66.4	68.5	66.0
(S.D.)		(6.0)	(5.9)	(4.9)	(4.9)	(3.3)	(3.7)	(6.8)	(6.3)	(5.3)	(5.9)	(4.8)
가구주 교육수준	중졸이하	33.9	38.3	7.4	28.9	32.9	50.9	83.5	51.0	45.2	78.4	44.7
	고졸	39.2	39.3	42.7	52.3	51.9	41.3	12.3	34.8	35.5	15.1	35.0
	전문대졸	9.8	8.0	11.8	9.3	4.8	3.6	1.2	1.2	3.8	0.0	2.2
	대졸	11.0	12.2	31.7	6.5	9.4	4.0	3.0	11.8	12.8	5.5	14.3
	대학원이상	6.1	2.2	6.4	3.0	1.0	0.2	0.0	1.2	2.7	1.1	3.8
가구주 직업	관리전문직	14.6	9.6	24.7	10.3	10.4	1.6	1.3	10.8	18.1	0.7	11.1
	사무직	8.1	6.1	17.9	11.9	5.7	5.6	2.7	3.1	3.2	0.0	5.5
	서비스판매 기능직	21.3	23.9	16.0	29.9	18.0	42.4	23.2	16.7	15.1	6.1	14.7
	노무/기타	29.0	34.2	34.2	27.7	49.9	27.4	6.6	25.4	25.9	13.2	36.0
		26.9	25.7	7.2	20.2	16.0	23.0	66.3	43.9	37.6	80.0	32.7
가구소득(천원)		1,761	2,995	4,824	2,586	4,744	2,576	891	2,009	3,565	1,556	3,875
맞벌이여부	예	-	41.8	50.2	-	40.7	-	-	14.4	25.6	-	25.3
	아니오	-	58.2	49.2	-	59.3	-	-	85.6	74.4	-	74.7
거주형태	자가	31.8	65.7	68.1	38.3	74.4	56.3	60.1	79.3	75.4	81.3	88.9
	전세	30.5	11.0	17.6	22.2	6.6	14.5	16.1	8.1	15.4	2.3	6.0
	보증부월세	32.2	17.3	10.9	32.0	13.9	20.4	13.7	6.6	7.0	11.7	3.7
	기타	5.5	6.0	3.4	7.5	5.1	8.8	10.1	6.0	2.2	4.7	1.4
거주지역	도시	91.0	88.7	85.9	90.2	85.7	89.3	79.7	85.5	84.1	83.9	84.7
	읍면	9.0	11.3	14.1	9.8	14.3	10.7	20.3	14.5	15.9	16.1	15.3
자녀나이(세)	첫째	-	-	16.3	20.4	27.1	27.0	-	-	35.1	39.0	34.5
	막내	-	-	13.5	18.5	26.1	26.4	-	-	33.9	38.3	33.7
자녀수(명)	비동거포함	-	-	2.0	1.7	1.5	1.4	-	-	1.6	1.2	1.3
	동거	-	-	1.7	1.2	0.9	0.7	-	-	1.1	0.7	0.8

* p<.05 ** p<.01 *** p<.001

제 2 절 가구유형별 생애주기에 따른 소비지출양식

1. 가구유형별 소비지출양식

다음에 제시된 [표 4-2]는 가구의 전체 소비지출액에서 각 비목에 사용한 금액 및 지출비중을 가구유형별로 비교하여 보고,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표이다. 일인가구는 전체 소비지출의 절반 이상을 주거수도광열(21.9%), 식료품(20.9%), 음식숙박(10.9%) 등에 지출하고 있으며 보건(10.7%)에도 적지 않은 비중을 지출하고 있다. 무자녀부부는 일인가구와 유사한 소비지출양식을 보이거나 식료품 비중은 일인가구에 비해 높은 반면 주거수도광열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유자녀부부가구는 전반적으로 고른 지출양식을 보이는 가운데 교육비 비중이 1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367,915원으로 지출비목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교육비에 지출하고 있다. 유자녀 한부모가구의 경우에는 교육비 지출이 유자녀 부부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며, 식료품이나 주거수도광열과 같은 필수적인 재화에 대한 지출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2] 가구유형별 각 비목 소비지출액 및 비중 비교(N=14,780,129)

(단위: %(천원))

	일인가구 (17.1)	무자녀부부 (13.6)	유자녀부부 (61.0)	유자녀한부모 (8.3)	F
식료품	20.9(147) c	23.2(289) d	14.8(365) a	17.2(220) b	640722.08***
주류및담배	1.7(15) c	1.8(22) d	1.2(29) a	1.6(21) b	61010.60***
의류신발	5.4(59) b	5.0(89) a	6.7(188) d	6.0(100) c	104730.12***
주거수도광열	21.9(181) d	16.7(225) b	10.7(263) a	17.0(228) c	880364.43***
가정용품	3.9(38) c	4.0(72) d	3.4(98) a	3.6(58) b	12393.66***
보건	10.7(85) c	11.4(163) d	6.0(158) a	6.6(96) b	366274.52***

교통	7.4(88) a	9.4(180) c	11.2(333) d	9.2(162) b	135092.84***
통신	4.9(45) a	5.0(72) b	6.8(169) c	7.1(104) d	343571.90***
오락문화	4.9(50) c	4.8(90) b	5.3(152) d	4.4(68) a	21401.05***
교육	0.4(5) b	0.4(7) a	12.0(367) d	6.0(119) c	1451559.69***
음식숙박	10.9(114) b	10.3(167) a	13.1(346) d	12.5(196) c	112762.03***
기타	7.1(70) a	7.9(152) b	8.8(237) d	8.8(152) c	53243.55***

* p<.05 ** p<.01 *** p<.001

a,b,c,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각 가구유형별로 생애주기에 따른 소비지출양식은 어떠한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일인가구의 생애주기에 따른 소비지출양식

가구유형별 소비지출양식을 생애주기에 따라 살펴보면 일인가구의 경우 장년기에서 은퇴기로 갈수록 식료품, 주거수도광열, 가정용품, 보건 등의 비목에 대한 지출비중은 증가하며, 의류신발,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지출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표 4-3] 참조). 특히 장년기와 중년기의 차이보다,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중년기에서 은퇴기로 가는 시점에서 전반적인 소비지출액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며, 필수재적 성격의 비목보다 비필수재적 성격의 비목의 지출비중 감소폭이 더 크다. 그러나 보건의 지출액 및 지출비중은 은퇴기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식료품 역시 지출액과 지출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주거수도광열비의 경우 은퇴기로 갈수록 지출액은 감소하지만 전체 지출비중 가운데 차지하는 지출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소비지출 역시 줄어들어서 전체소비지출에서 주거수도광열비가 차지하는 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3] 일인가구 비목별 소비지출액 및 비중(N=2,530,960)

(단위: %(천원))

	장년기 (19.4)	중년기 (22.1)	은퇴기 (58.5)	F
식료품	9.2(113) a	15.5(144) b	26.7(159) c	724812.38***
주류및담배	2.3(28) b	2.4(22) c	1.4(8) a	60314.13***
의류신발	8.5(120) c	6.7(85) b	3.8(28) a	182177.72***
주거수도광열	17.8(225) a	19.1(181) b	24.3(166) c	637259.48***
가정용품	2.2(45) a	3.4(37) b	4.6(36) c	39597.79***
보건	3.8(57) a	6.2(68) b	14.6(100) c	418712.22***
교통	12.3(201) c	11.0(140) b	4.4(31) a	247787.27***
통신	7.5(93) c	6.4(65) b	3.5(21) a	406182.20***
오락문화	7.8(115) c	5.0(60) b	3.9(24) a	92103.08***
교육	1.1(16) c	0.7(8) b	0.1(1) a	522804.82***
음식숙박	19.4(262) c	15.8(165) b	6.2(45) a	590580.99***
기타	8.1(112) c	7.8(82) b	6.5(51) a	53970.40***

* p<.05 ** p<.01 *** p<.001

a,b,c: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무자녀가구의 생애주기에 따른 소비지출양식

무자녀가구는 장년기에서 은퇴기로 갈수록 식료품비, 주거수도광열비, 보건비 등과 같은 비목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반대로 의류신발,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 비목에 대한 지출비중은 은퇴기로 갈수록 점차 낮아지고 있다. 즉, 일인가구와 마찬가지로 생계와 직접 관련이 있는 필수재적 성격의 비목에 대한 지출비중은 갈수록 증가하며, 개인의 선호가 좀 더 반영된다고 할 수 있는 선택재적 성

격의 비목에 대한 지출비중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장년기 무자녀가구는 식료품비, 주거수도광열비에 높은 비중으로 지출을 하는 동시에, 의류신발,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 비목에 중년기나 은퇴기에 비해 높은 지출을 보인다. 생애주기 단계상 가족 형성기 또는 신혼기에 해당하는 가구가 많고, 맞벌이 부부 비율이 높기 때문에 대외활동과 관련된 비목에 대한 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중년기 무자녀가구는 식료품비와 주거수도광열비의 지출금액과 비중이 모두 장년기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과 음식숙박, 기타 비목에 대한 지출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년기 무자녀가구의 주류 및 담배에 대한 지출은 세 단계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은퇴기 무자녀가구는 식료품비 지출비중이 급증하며 지출액도 12개 비목 가운데 가장 높다. 보건의 지출비중 역시 중년기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주거수도광열비의 지출비중도 20%에 육박해 높은 지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의류신발, 교통, 통신, 음식숙박 등의 비목에 대한 지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표 4-4] 무자녀가구 비목별 소비지출액 및 비중(N=2,005,078)

(단위: %(천원))

	장년기 (15.1)	중년기 (18.7)	은퇴기 (66.2)	F
식료품	11.6(220) a	18.7(290) b	27.1(304) c	618377.76***
주류및담배	1.8(31) b	2.3(35) c	1.6(16) a	27063.97***
의류신발	7.8(179) c	6.4(119) b	4.0(61) a	115779.73***
주거수도광열	11.1(222) a	14.6(232) b	18.6(223) c	90105.89***
가정용품	3.9(90) a	4.0(74) b	4.0(68) b	5688.90***
보건	6.1(143) a	7.7(140) b	13.6(175) c	247100.96***
교통	14.8(341) c	12.3(263) b	7.4(120) a	79311.06***
통신	8.0(146)	6.5(101)	4.0(47)	255491.81***

	c	b	a	
오락문화	6.4(174)	4.8(85)	4.4(72)	19416.61***
교육	1.0(28)	0.4(7)	0.2(3)	391650.02***
음식숙박	16.7(332)	13.4(237)	8.0(109)	198315.90***
기타	10.6(245)	9.1(175)	7.0(125)	33577.59***

* p<.05 ** p<.01 *** p<.001

a,b,c: Duncan's Multiple Range Test

4. 유자녀부부가구의 생애주기에 따른 소비지출양식

[표 4-5]는 유자녀부부가구의 소비지출액 및 소비지출 비중을 보여준다. 유자녀부부가구의 소비지출양식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교육비 지출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첫째자녀 평균나이가 16.3세, 막내자녀 평균나이가 13.5세인 중년기 자녀독립전의 유자녀부부가구의 교육비 지출액은 평균 약 52만원, 지출비중은 약 16.6%로 지출액과 지출비중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주거수도광열비, 보건, 통신 등에 대한 지출비중은 다른 유형의 가구에 비해 생애주기 단계에 따른 변화가 적은 편이다.

장년기 자녀가 독립하기 전인 유자녀부부가구에서는 중년기나 은퇴기에 비해 가정용품, 오락문화, 기타 비목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고, 교육비지출이 장년기 무자녀부부가구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보건비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장년기에서 은퇴기로 갈수록 지출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반해, 자녀가 아직 어리고 출산이 주로 이루어지는 이 단계에서는 아직 장년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비에 대한 지출이 중년기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년기 자녀독립전 유자녀부부가구가 되면 교육비에 대한 평균 지출액이 장년기에 비해 두 배 넘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출비중도 16.6%로 전체 비목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식료품, 통신, 음식숙박에 대한 지출액 및 지출비중 역시 장년기에 비해 증가하는 반면, 가정용품, 기타 비목에 대한 지출액과 지출비중은 장년기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

중년기에 모든 자녀가 독립을 한 이후에는 교육비 지출 비중이 큰 폭으로 낮아지며, 오락문화에 대한 지출액 및 지출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이에 반해 주류 및 담배, 가정용품, 교통, 기타 비목 등에 대한 지출액 및 지출비중은 자녀 독립전에 비해 증가하며, 오락문화와 교육비를 제외한 모든 비목에서 지출비중이 자녀 독립전에 비해 높아지고 있다.

은퇴기에는 식료품비의 지출비중이 커지며, 보건비의 지출액 및 지출비중도 높아진다. 이 시기에는 전체소비지출 가운데 주거수도광열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진다. 은퇴기의 의류신발, 오락문화, 음식숙박에 대한 지출액 및 지출비중은 중년기에 비해 낮아지나, 은퇴기내에서는 자녀가 모두 독립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 비목들에 대한 지출액 및 지출비중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표 4-5] 유자녀부부가구 비목별 소비지출액 및 비중(N=9,010,293)

(단위: %(천원))

	장년기	중년기		은퇴기		F
	자녀독립전 (24.5)	자녀독립전 (56.3)	자녀독립 (7.5)	자녀독립전 (3.5)	자녀독립 (8.2)	
식료품	13.7(339) a	13.8(377) b	15.9(349) c	21.1(386) d	21.5(370) e	461601.84***
주류및담배	1.2(28) b	1.1(28) a	1.7(36) d	1.8(33) e	1.6(27) c	51813.45***
의류신발	6.9(185) d	6.7(199) c	7.2(187) e	5.4(136) a	6.4(143) b	64841.76***
주거수도광열	10.8(269) b	10.0(269) a	11.6(247) c	13.4(249) e	12.8(225) d	467339.64***
가정용품	4.5(128) e	2.9(88) a	3.5(102) c	3.2(76) b	3.9(85) d	47674.60***
보건	6.3(160) b	5.2(153) a	6.2(153) b	9.0(175) c	9.4(178) d	208735.28***
교통	11.0(322) b	10.8(342) a	14.4(409) e	11.0(269) c	11.5(266) d	88269.86***
통신	6.3(151) b	7.1(187) c	7.3(164) e	7.1(138) d	6.3(121) a	144874.74***
오락문화	6.2(167) e	5.2(159) d	4.4(126) a	4.5(99) b	4.7(106) c	38217.56***
교육	9.4(253) d	16.6(524) e	2.0(63) b	2.8(75) c	1.4(41) a	1784198.24***
음식숙박	12.5(317) b	13.2(375) d	15.5(373) e	11.5(238) a	12.6(259) c	75035.92***

기타	11.3(287) e	7.6(220) a	10.3(273) d	9.3(232) c	8.0(178) b	133909.73***
----	----------------	---------------	----------------	---------------	---------------	--------------

* p<.05 ** p<.01 *** p<.001

a,b,c,d,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유자녀 한부모가구의 생애주기에 따른 소비지출양식

유자녀 한부모 가구는 전반적으로 식료품비, 주거수도광열비, 교통, 교육, 음식숙박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다([표 4-6]참조). 장년기의 유자녀 한부모 가구는 월세 거주비율이 38.2%로 장년기 일인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데([표3-2]), 이로 인해 주거수도광열비의 지출비율이 18.2%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장년기의 유자녀 한부모 가구에서는 이 밖에도 의류신발, 오락문화에 대한 지출이 한부모 가구유형내 중년기나 은퇴기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비의 경우 장년기에는 약 22만 7천원, 지출비중으로는 12.7%에서, 중년기에는 약 21만 7천원, 지출비중으로는 10.7%로 감소하고 있어, 유자녀 부부 가구가 장년기에서 중년기로 가면서 교육비 지출액 및 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년기 자녀독립전 한부모 가구는 식료품, 보건, 통신, 음식숙박, 기타 비목에 대한 지출이 장년기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며, 통신비는 한부모 가구의 생애주기 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지출을 보이고 있다. 자녀가 모두 독립한 중년기 한부모 가구는 중년기 유자녀 부부 가구와 마찬가지로 교육비 지출이 급감하며, 주류및담배, 통신, 오락문화, 교육을 제외한 모든 비목에 대한 지출비중이 증가한다.

은퇴기에는 식료품, 주거수도광열, 보건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의류신발, 음식숙박, 기타 비목 등에 대한 지출비중은 낮아지고 있다. 은퇴기에 가정용품, 교통, 음식숙박, 기타 비목에 대한 지출비중은 중년기에 비해 낮아지고 있지만, 은퇴기 내에서는 자녀가 모두 독립을 하면서 이 비목들에 대한 지출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6] 유아녀한부모가구 비목별 소비지출액 및 비중(N=1,233,799)

(단위: %(천원))

	장년기	중년기		은퇴기		F
	자녀독립전 (6.8)	자녀독립전 (41.9)	자녀독립 (20.1)	자녀독립전 (10.5)	자녀독립 (20.7)	
식료품	11.1(185) a	13.9(218) b	16.1(219) c	24.0(243) e	23.5(225) d	55424.13***
주류및담배	2.2(34) c	1.4(21) b	1.4(22) b	2.7(26) d	1.3(14) a	10251.72***
의류신발	6.9(136) e	6.1(112) b	6.5(107) c	6.6(92) d	4.6(62) a	6678.51***
주거수도광열	18.2(291) c	15.1(235) a	16.6(236) b	20.7(196) e	18.9(199) d	27570.44***
가정용품	4.0(66) d	3.3(58) b	3.8(63) c	3.2(37) a	4.3(59) e	1786.07***
보건	3.6(68) a	5.1(93) b	5.5(84) c	9.0(92) d	10.5(125) e	21349.47***
교통	8.8(213) b	9.0(165) c	11.6(211) d	6.3(83) a	8.7(133) b	9845.94***
통신	6.8(109) c	8.3(133) e	7.6(108) d	5.9(64) b	4.9(62) a	51993.29***
오락문화	5.6(94) e	4.6(81) d	4.2(63) b	4.3(47) c	3.7(46) a	9630.77***
교육	12.7(227) e	10.7(217) d	1.9(36) c	1.2(17) b	0.8(18) a	56830.36***
음식숙박	12.5(215) c	13.7(234) d	14.1(219) e	9.0(106) a	10.4(136) b	15328.20***
기타	7.7(136) b	8.7(167) d	10.7(178) e	7.2(96) a	8.0(128) c	7668.30***

* p<.05 ** p<.01 *** p<.001

a,b,c,d,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제 3 절 생애주기별 가구유형에 따른 소비지출양식

1. 생애주기별 소비지출양식

다음에 제시된 [표 4-7]은 전체 생애주기단계에 따른 전체 소비지출액에 대한 비목별 소비지출액 및 소비지출비중을 살펴본 것이다. 장년기에는 식료품비, 주거수도광열비와 같은 생활필수재에 대한 지출 외에 교통, 음식숙박, 기타 항목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오락문화와 의류신발의 경우 중년기나 은퇴기에 비해 소비지출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다. 중년기에는 장년기나 은퇴기와 비교하여 교육비의 지출이 두드러지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퇴기에는 음식숙박비의 지출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식료품의 지출비중이 25.3%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외식을 가구내 식사로 대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거수도광열비의 지출도 장년기 및 중년기와 비교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은퇴기에는 보건의 비중이 12.6%로 다른 생애주기 단계에 비해 은퇴이후 보건의 지출비중이 매우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7] 생애주기단계별 소비지출액 및 비중(N=14,780,129)

(단위: %(천원))

	장년기 (20.9)	중년기 (50.4)	은퇴기 (28.7)	F
식료품	12.7(287) a	14.5(336) b	25.3(265) c	3005041.56***
주류및담배	1.4(28) b	1.3(28) a	1.5(17) c	11453.87***
의류신발	7.3(172) c	6.7(176) b	4.6(70) a	388149.03***
주거수도광열	12.1(258) b	11.6(255) a	19.3(203) c	735936.71***
가정용품	4.1(109) b	3.1(82) a	4.1(59) c	90520.44***
보건	5.8(140) b	5.5(140) a	12.6(144) c	1140096.42***
교통	11.5(302) c	11.1(312) b	7.4(125) a	299711.45***
통신	6.7(140)	7.1(165)	4.6(59)	854792.65***

	b	c	a	
오락문화	6.4(157)	5.0(137)	4.2(61)	218346.61***
교육	7.4(192)	12.4(380)	0.6(15)	1928557.80***
음식숙박	14.0(307)	13.7(337)	8.6(124)	808343.44***
기타	10.6(251)	8.1(207)	7.2(116)	260896.06***

* p<.05 ** p<.01 *** p<.001

a,b,c: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 장년기의 가구유형별 소비지출양식

[표 4-8]은 장년기 단계에서 가구 유형에 따른 비목별 소비지출액 및 소비지출 비중을 보여준다. 장년기 일인가구는 주거수도광열비 지출비중이 17.8%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주거수도광열비의 하위 비목에 월세 비목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이들의 월세 거주 비율이 39.5%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장년기 일인가구는 식료품, 가정용품, 보건에 대한 지출비중이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주류 및 담배, 의류신발, 오락문화, 음식숙박 등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필요에 의한 소비보다는 욕구에 따른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무자녀부부의 경우에도 음식숙박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은 특히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교통과 통신에 대한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유자녀부부 가구와 유자녀 한부모 가구는 공히 교육비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장년기의 유자녀부부 가구는 자녀의 출산으로 가구내 가구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년기 단계의 가구유형 가운데 식료품, 가정용품, 보건, 기타 비목에 대한 지출 비중이 가장 높다. 일인가구 다음으로 월세거주 비율이 높은 유자녀 한부모 가구는 주거수도광열비 지출 비중이 18.2%로 비목별 지출비중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유자녀 한부모가구의 평균소득은 유자녀부부 가구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육비에 대한 지출비중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거수도광열비, 교육비 외에 음식숙박, 식료품에

대한 지출비중 역시 높은 반면, 보건에 대한 지출비중은 유자녀부부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인다. 장년기 유자녀 한부모가구는 주류 및 담배에 대해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8] 장년기 비목별 소비지출액 및 비중(N=3,083,391)

(단위: %(천원))

	일인가구 (15.9)	무자녀부부 (9.8)	유자녀부부 (71.5)	유자녀한부모 (2.7)	F
식료품	9.2(113) a	11.6(220) c	13.7(339) d	11.1(185) b	251918.18***
주류및담배	2.3(28) d	1.8(31) b	1.1(28) a	2.2(34) c	27567.23***
의류신발	8.5(120) d	7.8(179) c	6.9(185) a	6.9(136) b	66229.17***
주거수도광열	17.8(225) c	11.2(222) b	10.8(269) a	18.2(291) d	72564.48***
가정용품	2.2(45) a	3.9(90) b	4.5(128) d	4.0(66) c	35919.44***
보건	3.8(57) b	6.1(143) c	6.3(160) d	3.6(68) a	51799.05***
교통	12.3(201) c	14.8(341) d	11.0(322) b	8.8(213) a	40720.21***
통신	7.5(93) c	8.1(146) d	6.3(151) a	6.8(109) b	38896.59***
오락문화	7.8(115) d	6.4(174) c	6.2(167) b	5.6(94) a	103504.01***
교육	1.1(16) b	1.0(28) a	9.4(253) c	12.7(227) d	93036.64***
음식숙박	19.4(262) c	16.7(332) b	12.5(317) a	12.4(215) a	156493.79***
기타	8.1(112) b	10.6(245) c	11.3(287) d	7.7(136) a	148463.66***

* p<.05 ** p<.01 *** p<.001

a,b,c,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중년기의 가구유형별 소비지출양식

중년기에는 전반적으로 식료품비, 주거수도광열, 교통, 음식숙박 등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게 나타난다([표4-9]). 중년기 일인가구는 식료품, 주

거수도광열비, 음식숙박 등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다. 무자녀부부 가구는 식료품에 대한 지출비중이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가장 높고, 보건에 대한 지출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자녀가 독립하기 전인 중년기 부부 가구는 교육비에 대한 지출액이 약 52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오락문화에 대한 지출도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다. 반면에 주류 및 담배, 주거수도광열, 가정용품에 대한 지출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모든 자녀가 독립한 이후의 중년 부부 가구에서는 의류신발, 음식숙박, 교통, 기타 비목 등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류 및 담배, 가정용품에 대한 지출액과 비중도 자녀 독립전에 비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녀가 독립하면서 자녀에 대한 교육비 부담이 줄게 되어 이를 다른 선택재적 성격의 비목에 대한 소비지출로 돌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년기 한부모 가구에서는 주거수도광열의 지출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통신비 지출비중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자녀가 독립하기 전인 한부모가구의 교육비 지출 역시 높게 나타나지만, 자녀독립전 유자녀부부 가구에 비해서는 지출액과 지출비중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이는 이들의 가구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자녀 독립전 유자녀부부 가구와 유자녀 한부모 가구의 자녀나이를 비교해 보면 첫째와 막내 자녀의 나이가 각각 16.3세와 13.5세, 20.4세와 18.5세로, 한부모 가구의 첫째 자녀의 평균 나이는 이미 성년을 지나고 있으며, 막내 자녀의 나이도 고등학교 졸업시기에 근접해 있다. 중년기의 유자녀 부부 가구와 유자녀 한부모 가구의 자녀수도 동거자녀수는 각각 1.7명과 1.2명, 비동거자녀까지 포함한 자녀수는 2.0명과 1.7명으로 한부모 가구의 자녀수가 적다. 결국 이러한 가구의 특성이 교육비 지출에 차이를 가져오는 한 원인일 수 있다. 중년기 한부모가구의 경우에도 자녀가 독립을 하게 되면 교육비 부담이 줄면서 여타 비목들에 대한 소비지출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9] 중년기 비목별 소비지출액 및 비중(N=7,445,919)

(단위: %(천원))

	일인가구 (7.5)	무자녀부부 (5.0)	유자녀부부		유자녀한부모		F
			자녀독립전 (68.1)	자녀독립 (9.1)	자녀독립전 (7.0)	자녀독립 (3.3)	
식료품	15.5(144) c	18.7(290) f	13.8(377) a	15.9(349) b	13.9(218) d	16.1(219) e	248012.09***
주류및담배	2.4(22) e	2.3(35) d	1.1(28) a	1.7(36) b	1.4(21) c	1.4(22) b	45983.49***
의류신발	6.7(85) e	6.4(119) b	6.7(199) d	7.2(187) a	6.1(112) f	6.5(107) c	28420.75***
주거수도광열	19.1(181) f	14.6(232) c	10.0(269) a	11.6(247) d	15.1(235) b	16.6(236) e	197741.86***
가정용품	3.4(37) c	4.0(74) f	2.9(88) a	3.5(102) b	3.3(58) d	3.8(63) e	36722.18***
보건	6.2(68) f	7.7(140) d	5.2(153) b	6.2(153) a	5.1(93) e	5.5(84) c	164702.60***
교통	11.0(140) c	12.3(263) e	10.8(342) b	14.4(409) a	9.0(165) f	11.6(211) d	54738.68***
통신	6.5(65) a	6.4(101) a	7.1(187) b	7.3(164) e	8.3(133) c	7.6(108) d	168001.56***
오락문화	4.9(60) e	4.8(85) f	5.2(159) d	4.4(126) c	4.6(81) b	4.2(63) a	6191.65***
교육	0.7(8) b	0.3(7) a	16.6(524) f	2.0(63) e	10.7(217) d	1.9(36) c	1268157.35***
음식숙박	15.8(165) f	13.4(237) b	13.2(375) a	15.5(373) c	13.8(234) e	14.1(219) d	110409.20***
기타	7.8(82) b	9.1(175) d	7.6(220) a	10.3(273) c	8.7(167) e	10.7(178) f	31699.44***

* p<.05 ** p<.01 *** p<.001

a,b,c,d,e,f: Duncan's Multiple Range Test

4. 은퇴기의 가구유형별 소비지출양식

은퇴기에는 전반적으로 가구유형에 상관없이 식료품의 소비지출비중이 20%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표 4-10] 참조). 그러나 유자녀 가구의 경우 외식비를 포함하는 음식숙박비에 여전히 적지 않은 소비지출을 하고 있으며, 교통과 통신비 지출도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인가구의 경우 주거수도광열비와 보건비 지출비중이 각각 24.3%와 14.6%로, 가정용품을 포함한 생계를 위한 필수 비목에 대한 소비지출이 전체 소비지출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소득이 급감하면서 필수재에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하고 개인의 선호가 반영된다고 할 수 있는 선택재와 같은 비목에 대한 소비 기회가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일인가구는 교통, 통신 지출 비중 역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들의 생활 환경이 좁아지고 타인과의 소통의 기회가 적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무자녀부부의 소비지출양식도 일인가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식료품, 주거수도광열, 보건 등과 같은 비목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교통에 있어서는 일인가구와 비교하여 비교적 높은 지출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유자녀부부 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식료품, 주거수도광열, 보건 등에 대한 지출비중이 낮고, 교통, 통신, 음식숙박 등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다. 유자녀 한부모 가구 역시 식료품, 주거수도광열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고, 보건, 음식숙박에 대한 지출비중도 비교적 높다. 자녀 독립전의 유자녀 한부모 가구는 주류 및 담배에 대한 지출 비중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표 4-10] 은퇴기 비목별 소비지출액 및 비중(N=4,250,820)

(단위: %(천원))

	일인가구 (34.9)	무자녀부부 (31.2)	유자녀부부		유자녀한부모		F
			자녀독립전 (7.5)	자녀독립 (17.4)	자녀독립전 (3.0)	자녀독립 (6.0)	
식료품	26.7(159) e	27.1(304) f	21.1(386) a	21.5(370) d	23.9(243) b	23.5(225) c	1066375.80***
주류및담배	1.4(8) b	1.6(16) d	1.8(33) e	1.6(27) f	2.7(26) c	1.3(14) a	12216.23***
의류신발	3.8(28) a	4.1(61) b	5.4(136) d	6.4(143) f	6.6(92) e	4.6(62) c	160654.28***
주거수도광열	24.3(166) f	18.6(223) c	13.4(249) b	12.8(225) e	20.7(196) a	18.9(199) d	378626.87***
가정용품	4.6(36) f	4.0(68,209) d	3.2(76) a	3.9(85) b	3.2(37) c	4.3(59) e	19531.26***
보건	14.6(100) f	13.6(175) e	9.0(175) b	9.4(178) a	9.0(92) c	10.5(125) d	445367.33***
교통	4.4(31) a	7.4(120) c	11.0(269) e	11.5(266) b	6.3(83) f	8.7(133) d	171720.00***
통신	3.5(21) a	4.0(47) b	7.1(138) f	6.3(121) d	5.9(64) e	4.9(62) c	403215.22***
오락문화	3.9(24) b	4.4(72) d	4.4(99) e	4.7(106) c	4.3(47) f	3.7(46) a	37826.95***
교육	0.1(1) a	0.2(3) b	2.8(75) f	1.3(41) d	1.2(17) e	0.8(18) c	533959.10***
음식숙박	6.2(45) a	8.0(109) b	11.5(238) e	12.6(259) c	9.0(106) f	10.4(136) d	360711.59***
기타	6.5(51) a	7.0(125) b	9.3(232) f	8.0(178) c	7.2(96) d	8.4(128) e	43867.61***

* p<.05 ** p<.01 *** p<.001

a,b,c,d,e,f: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구유형과 생애주기를 함께 고려하여 생애주기 단계를 분류하고, 그렇게 분류된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의 특성과 소비지출양식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가계의 생애주기를 가구유형과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16개의 생애주기 단계로 분류해 볼 수 있었다. 가구유형은 결혼지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일인가구, 무자녀부부가구, 유자녀부부가구, 유자녀한부모가구 등 4 유형으로 나누었고, 생애주기는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장년기, 중년기, 은퇴기로 나누었으며, 중년기와 은퇴기 유자녀가구의 경우 자녀의 취업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다시 자녀독립전 가구와 자녀독립 가구로 분류하였다. 위와 같이 분류된 생애주기 단계별 가구 특성을 보면 장년기에서 은퇴기로 가면서 교육수준은 낮아지고 있으며, 가구주 직업은 장년기에는 관리전문직이나 사무직이 많은 반면 은퇴기에는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중년기에 가장 높아졌다가 은퇴기에는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자가 거주 비율은 생애주기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같은 은퇴기에 속할지라도 가구유형에 따라 다시 집단을 나누어 가계의 특성을 살펴보면 일인가구일 경우 소득수준은 은퇴기 가구 평균 소득인 20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89만원에 그치고 있으며, 자가거주율도 은퇴기 평균인 73.5%에 못 미치는 60%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부모가구 역시 동일한 생애주기에 있는 유자녀부부가구와 비교할 경우 교육수준이 낮고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며, 자가거주 비율이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재무위험에 대한 대비가 취약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가구유형별 생애주기에 따른 소비지출양식에 차이가 있었다. 일인가구 및 무자녀가구의 경우 식료품, 주거수도광열, 보건 등과 같은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목에 대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의류신발, 교통, 통신, 오락문화, 음식숙박과 같이 여가와 직간접적으로 있는 비목들에 대하여는 은퇴기로 갈수록 지출 비중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자녀부부가구의 경우 자녀가 대부분 학령기인 중년기에 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었으며, 비교적 일찍 자녀를 독립시킨 중년기 유자녀부부가구는 교육비 부담이 급감하는데다가 여전히 이전 단계와 유사한 수준의 소득을 유지하고 있어서 일인가구나 무자녀가구와 달리 주류 및 담배, 의류신발, 교통, 통신, 음식숙박 등과 같이 생계에 비필수적인 비목에 상대적으로 높은 지출비중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생애주기별 가구유형에 따른 소비지출양식에도 차이가 보였다. 장년기 일인가구는 주류 및 담배, 의류신발, 오락문화, 음식숙박 등에 대한 지출 비중이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무자녀부부 역시 교통과 음식숙박에 대한 지출이 높게 나타나, 가정이나 육아에 대한 부담이 적은 가구유형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자녀 한부모가구는 장년기에는 유자녀부부가구와 교육비 지출액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중년기에는 유자녀부부가구에 비해 절반에 못 미치는 금액을 교육비에 지출하고 있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유자녀 한부모가구의 자녀가 유자녀 부부가구에 비해 교육의 기회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가구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자녀독립전 유자녀부부 가구와 유자녀 한부모 가구의 자녀나이를 비교해 보면 중년기 유자녀부부의 자녀는 여전히 중고등학교 시기에 머물러 있는 반면, 같은 중년기라도 유자녀 한부모 가구의 자녀는 성년이거나 고등학교 졸업에 가까운 나이를 나타냈다. 결국 이러한 가구의 특성이 교육비 지출에 차이를 가져오는 한 원인일 수 있다.

은퇴기에는 유자녀부부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유형이 식료품, 주거수도광열과 같은 생활 필수재적 비목과 보건비에 총소비지출액의 50%가 넘는 소비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애주기의 끝단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은퇴기 일인가구의 경우 평균 소득은 약 89만원에 그치는데 비해 이러한 비목들의 지출비중이 70%에 육박해 이들의 삶의 복지 수준이 현격히 저하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을 통해, 생애주기를 분류하고 그에 따른 가계 특성과 소비지출양식을 파악하는데 있어 가구유형을 함께 고려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하며 이를 통해 각 가계 특성에 적합하고 구체적인 재무목표 설정과 재무설계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어느 유형의 가계가 어떠한 생애주기 단계에서 더 재무적으로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정책적, 교육적 대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제언

위의 결론을 토대로 한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재무설계 측면에서 전통적인 생애주기의 흐름만이 아니라 가구유형을 고려한 생애주기를 근거로 한 재무설계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전체적인 소득 흐름을 보면 장년기에서 중년기로 가면서 증가하고 중년기에서 은퇴기로 가면서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유자녀 가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년기 소득이 가장 높았다가 은퇴기에 다시 감소한다. 그러나 일인가구와 무자녀가구의 경우 소득은 장년기에 가장 높고 중년기를 거쳐 은퇴기로 갈수록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지출에 있어서도 일인가구와 무자녀가구는 장년기에서 은퇴기로 가면서 생활 필수재적 비목에 대한 지출 비중이 커지고 선택재적 성격을 갖는 비목에 대한 지출 비중이 감소하지만, 유자녀부부의 경우 은퇴기에도 일부 선택재적 성격을 갖는 비목에 대한 지출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에 있는 가계라도 가구유형이 다를 경우 소득과 소비지출양식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무설계를 하는 실무에 있어서 생애주기를 분류하고 그에 따른 가계 특성과 소비지출양식을 파악하는데 있어 가구유형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된 가계 특성에 맞도록 재무설계 프로그램의 보완 또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적 측면에서 본다면 각 가계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적절한 재무설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적 재무교육과 더불어, 이혼이나 사별과 같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소득이나 지출과 같은 재무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취약해질 경우, 향후의 생애주기 흐름 속에서 삶의 복지수준의 저하를 최소화하고 어떻게 다시 재무 목표를 수립하고 자산을 배분할 것인지와 같은 사후적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취약 계층에 대한 입안과 정책시행이 필요한데, 가계특성과 소비지출양식을 고려해 볼 때 배우자가 있는 가구

보다는 한부모 가구나 일인가구가, 장년기나 중년기에 비해 은퇴기로 갈수록 재무적으로 더 취약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은퇴기 일인가구는 낮은 소득 수준에 비해 생활 필수재에 대한 지출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 이들의 복지 수준이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예산에 좌우되는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적 성격의 정책과 함께 이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생애주기 단계를 분류하면서 가구유형을 고려함으로써 전통적 생애주기 모형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일인가구, 무자녀가구, 한부모가구 등의 가계 특성 및 소비지출양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주를 분류하는데 있어서 주어진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일부 가구유형의 경우 하나의 가구유형 내에 여러 형태의 가구유형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은퇴기의 무자녀 부부가구와 일인가구는 평생을 무자녀가구와 자녀의 분가로 인해 부부만 남게 된 가구, 미혼 독신으로 살아 온 가구와 2인부부가구가 사별로 독신이 된 가구의 성격을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을 더욱 세분화하여 특성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에 따른 가계의 소비지출양식을 살펴봄으로써 각 생애주기마다 가계의 필요와 욕구가 소비지출양식을 통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더 구체적이고 적절한 재무설계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더욱 정확한 재무설계 또는 생애주기에 따른 가계의 재무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구유형과 생애주기에 따른 소비지출양식 뿐만 아니라 소비지출의 근원이 되는 소득이나 투자 및 저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가구유형과 생애주기에 따라 세분화된 각 가계가 주어진 소득 하에서 소비와 투자 및 저축간의 자원배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봄으로써, 가계의 재무건전성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소비지출양식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소득의 영향력에 대한 통제 없이 집단 간 지출액 및 지출비중의 차이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집단간 차이가 생애주기에 따른 것인지, 가구유형에 의한 차이인지, 소득을 통제된 상태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소비지출양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종속변수로 대분류인 12개 비목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지출비목을 중분류나 소분류를 사용하게 되면 가계의 소비지출양식의 차이가 생애주기와 가구유형에 따라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소비지출비목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를 이용하여 생애주기와 가구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소비지출양식의 차이를 더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장년기 유자녀 부부가구의 경우 기타 비목의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비목의 대분류 상으로는 무엇에 의한 차이인지 알기 어렵다. 그러나 기타 비목의 하위 항목의 지출을 살펴보면 산후조리원과 같은 출산 관련 비목에 대한 지출이 높기 때문인 것을 파악할 수 있고, 이는 출산이 주로 이루어지는 단계인 장년기 유자녀 부부가구의 소비지출양식임을 잘 말해준다. 이와 같이 좀 더 세분화된 소비지출비목을 살펴봄으로써 가계의 소비지출양식의 차이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가구유형과 생애주기라는 두 축을 기준으로 가계를 분류하고, 가계의 소비지출양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가구유형과 생애주기를 분류하는 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정된 생애주기 모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생애주기를 분류하는데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구희일·최석준(2009), 가구특성에 따른 가계의 여가소비지출 분석- 도시 지역과 비도시지역의 비교분석-, 소비문화연구, 12(1), 25-49.
- 김기환·서병선(2008), 패널 자료를 이용한 농가구 소비지출패턴에 대한 연구 : 도시 가구와의 비교, 농업경제연구, 49(3), 97-132.
- 김문길(2013), 가구구성 변화와 소득불평등, 그 정책함의,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 214호.
- 김민정·배미경(2002), 경제불황이 가계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과학논집, 28, 173-187.
- 김민정·최현자(2009), 도시가계의 사회계층별 소비양식과 영향요인, 소비문화연구, 12(4), 119-144.
- 김성용·이계임(2003), 한국농가의 소비지출구조 분석, 농업생명과학연구, 37(3), 73-82.
- 김정현·최현자(2002), 소득탄력성을 통해 본 도시가계의 소비지출양식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3(4), 269-292.
- 노윤주(1996), 도시근로자가계의 가족생활주기별 소비지출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옥·최현자(2008), 미혼독신가구의 소비지출과 저축 행태 및 유형화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4(2), 33-52.
- 백은영(2009),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가계 재무구조와 저축성향 분석, 소비자학연구, 20(2), 1-25.
- 손상희(1993), 가계소비패턴의 구조, 소비자학연구, 4(2), 51-72.
- 양성강·최현자(2009), 심적 회계를 통한 가계 소비지출행태에 대한 고찰, 소비자정책교육연구, 5(4), 37-58.
- 양세정(2005), 맞벌이 소비지출유형별 가계경제구조 분석, 사회과학연구, 20, 1-23.
- 양정선·김순미(2003),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교육비 지출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7(1), 135-152.
- 유영주(1984), 한국도시가족의 가족생활주기 모형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111-129.
- 이성림·김기옥(2009), 우리나라 독신가구의 여가활동 소비지출패턴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12(3), 105-123.
- 정영숙(2000), 소비지출패턴 : 연구동향과 미래전망, 소비자학연구, 11(2), 85-101.
- 정운영·정세은(2010), 저소득 노인가계와 고소득 노인가계의 소비지출구조 및 결정요인의 비교, 사회보장연구, 26(4), 21-48.
- 조동필·양세정(2004), 한국가계의 소비지출패턴 추이분석: 1980~2002년, 사회과학연구, 17, 1-20.

차경욱(2003), 미국 편모가계의 저축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1(6), 91-104.

차경욱(2003), 도시근로자가구의 여가소비지출 분석, 여가학연구, 1, 57-77.

천현진·이연숙(2007), 도시 근로자가계의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소득 및 소비지출 구조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1), 65-81.

최옥금(2011), 노인 가구의 소비지출 유형화 및 영향 요인 분석, 노인복지연구, 51, 277-296.

최현자(2000), 가구주의 직업유형에 따른 소비지출양식의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167-183.

하영원·정성희(2010), 소비자의 과거지출패턴이 소비지출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21(1), 201-221.

한수진·강이주(2007), 부동산 보유규모에 따른 가계 소비지출분석, 소비문화연구, 10(3), 105-128.

허은정·김우성(2003), 베이비붐세대 가계와 X세대 가계의 소비지출 및 저축, 소비문화연구, 6(3), 79-97.

국외문헌

Arndt, J. (1979), Toward a Concept of Domesticated Markets, The Journal of Marketing, 69-75.

- Bigelow, Howard F. (1942), Money and Marriage in Marriage and the Family, eds. Howard Becker and Reuben Hill, Boston: Health and Company, 382-386.
- Danko, D. W., & Schaninger, M. C.(1990), An Empirical Evaluation of The Gilly-Enis Updated Household Life Cycle Model,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21, 39-57.
- Duvall, E. M. (1971), Family Development, 4th ed., Philadelphia: J. B. Lippincott Company, 106-132.
- Fisher, J. A.(1955), Family Life Cycle Analysis in Research On Consumer Behavior, Consumer Behavior, Vol. 2., ed. Lincoln H. Clark,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8-35.
- Frey, C. J., & LaBay, D. G.(1983), A Comparative Study of Energy Consumption and Conservation across Family Life Cycle, in: Richard P. Bagozzi, Alice M. Tybout (Ed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 10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Ann Arbor, MI, 641 - 646.
- Fritzsche, D. J.(1981), An Analysis of Energy Consumption Patterns by Stage of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27-232.
- Gilly, M. C., & Enis, B. M.(1982), Recycling the Family Life Cycle: A Proposal for Redefinition,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9(1), 271-276.

- Glenn, N. D., & Weaver, C. N. (1988), The Changing Relationship of Marital Status to Reported Happin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17-324.
- Glick, P. C.(1947), The Family Cycl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2, 164-174.
- Glick, P. C.(1977), Updating the Life Cycle of the Fami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5-13.
- Glick, P. C.(1989), The Family Life Cycle and Social Change, *Family Relations*, 38(2), 123-129.
- Glick, P. C., & Parke, R. Jr.(1965), New Approaches in Studying the Life Cycle of the Family, *Demography*, 2, 187-202.
- Hill, R. L.(1964), Methodological Issues in Family Development Research, *Family Process*, 3, 186-206.
- Kirkpatrick, E. L., Cowles, M., & Tough, R.(1934), The Life Cycle of the Farm Family in Relation to Its Standard of Living, *Research Bulletin No. 121*, Madison, WI: University of Wisconsin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 Lansing, J. B., & Kish, L.(1957), Family Life Cycle as an Independent Variabl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2, 512-519.
- Lansing, J. B., & Morgan, J. N.(1955), Consumer Finances over the Life Cycle, in *Consumer Behavior*, Vol. 2, ed. Lincoln H. Clark,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36-51.

- Loomis, C. P.(1936), The Study of the Life Cycle of Families, *Rural Sociology*, 1, 180–199.
- Miller, D. L. (1955), The Life Cycle and The Impact of Advertising, *Consumer Behavior*, Vol. 2, ed. Lincoln H. Clark,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Murphy, E. P., & Staples, A. W.(1979), A Modernized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6(1), 12–22.
- Norton, A. J.(1974), The Family–Life Cycle Updated: Components and Uses, *Selected Studies in Marriage and the Family*, eds. Robert F. Winch and Graham B. Spanie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62–167.
- Reilly, K. S., Eroglu, S. A., Machleit, K. A. & Omura, G. S.(1984), Consumer Decision Making Across Family Life Cycle Stages, in: Thomas C. Kinnear (Ed.), *Advances in Computer Research*, vol. 11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Ann Arbor, MI, 400 - 404.
- Rodgers, R. H.(1960), Proposed Modification of Duvall Family Life Cycle Stages,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meetings, New York City.
- Rowntree, B. S.(1903), *Poverty: A Study of Town Life*, London: Macmillan.
- Sorokin, P. A., Zimmerman, C. C., & Galpin, C. J.(1931), *A Systematic Source book in Rural Sociology*, Vol. 2,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Teachman, J. D., Polonko, K. A., & Scanzoni, J.(1987). Demography of the family, In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6, Springer US.
- Trost, J.(1974), This Family Life Cycle-An Impossible Concept?,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of the Family, 37-47.
- Wagner, J., & Hanna, S.(1983), The Effectiveness of Family Life Cycle Variables in Consumer Expenditure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0(3), 281-291.
- Wells, W. C., & Gubar, G.(1966), Life Cycle Concept in Marketing Research,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 355-363.
- Wortzel, L. H.(1977), Young Adults: Single People and Single Person Household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 4, ed. William D. Perreault, Jr., Atlanta: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321-329.

Abstract

A Study on the Consumption
Expenditure
over the Revised Life Cycle

Hong Cheol Choi
Dept. of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and resultant financial structures may vary with household or individual life-cycle stages, which is why it is highly important to consider life-cycle stages in financial planning. Yet, most of domestic research on life-cycle stages is based on traditional models of life-cycle stages. It is possible to find out general goals in each life-cycle stage of domestic standard, or representative, households in terms of their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Still, on account of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as well as society in general, different types of households have continuously emerged and increased unlike in the past when they accounted for

only a small portion of total households. Thus,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considering the typology of households. In this context, the present study extends the perspective on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based on traditional life-cycle stages to the classification of life-cycle stages in consideration of household typology with a view to characterizing households in further detail and shedding light on how their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vary with different life-cycle stages.

Using 2012 Household Survey data from the Statistics Korea, this study raised the following questions and performed relevant analyses. First, [Question 1] concerns the classification of life-cycle stages considering the typology of domestic households and their characteristics. Next, [Question 2] concerns differences in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of each household type in line with life-cycle stages. [Question 3] concerns how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differ in line with household types in each life-cycle stage.

Below are significant findings and conclusions of this study.

First, domestic household life-cycle stages were classified into 16 stages considering household typology and life cycles. Household typology was classified into 4 types in terms of marital status with or without children, i. e. single-person households, childless-couple households, households of couples with children and single-parent households with children. Life-cycle stages were divided into maturity, middle-age adulthood and retirement stages based on household heads' age. The middle-age adulthood and retirement stages with children were subdivided into households with dependent or independent children based on the employment status of children. In regard of household characteristics in each life-cycle stage, many household heads were found to engage in managerial or other white color jobs in their maturity stage, whereas a high percentage of household heads in their retirement stage were in simple labor jobs. Household income levels were highest in the middle-age adulthood stage, decreasing by half in the retirement stage. The percentage of

owner-occupiers continued to increase in line with the life-cycle stages. Still, the retirement stage was subdivided into different groups in accordance with household typology, where single-person households fell way too short of the mean income level or owner-occupier rate in the retirement stage. Likewise, single-parent households showed lower education and job security levels and thus a lower owner-occupier rate compared with the households of couples with children in the same life-cycle stage, which suggests that they are relatively vulnerable to financial risks.

Second,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differed in line with different life-cycle stages of different household types. For single-person and childless households, expenditures for items directly associated with livelihood such as groceries, dwelling, water, light, heat and health care increased in line with life-cycle stages, whereas expenditures decreased for the items directly associated with leisure such as clothing, shoes, transport, communication, entertainment, culture, food and accommodation as those households approached the retirement stage. Households of couples with children had the highest expenditure for education for their school-age children in the middle-age adulthood. Middle-aged couples whose children became independent relatively early had the expenditures for education sharply decrease while maintaining income levels, which enabled them to keep relatively higher expenditures for items not indispensable for livelihood such as alcoholic beverages, tobaccos, clothing, shoes, transport, communication, food and accommodation unlike single-person or childless households.

Third,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differed in line with household typology in different life-cycle stages. Single-person households in the maturity stage had higher expenditures for alcoholic beverages, tobaccos, clothing, shoes, entertainment, culture, food and accommodation in comparison to the other household types. Childless households also showed high expenditures for transport, food and accommodation, which indicates that households of less burden of

expenses for housekeeping or child caring pursue relatively free life. Single-person households with children in the maturity stage did not show much difference in expenditures for education from the households of couples with children. By contrast, the expenditures for education in single-person households with children in the middle-age adulthood amounted to less than half of those in couples with children. This finding suggests that children from single-parent households have limited accessibility to educational opportunities compared to those from households of couples on one hand and that it is associated with their household characteristics on the other hand. Excluding households of couples with children, expenditures concentrated on items indispensable for living and for health care such as groceries, dwelling, water, light and heat in all the other types of households in the retirement stage. Particularly, expenditures for such items reached 70% in single-person households in the retirement stage, suggestive of a remarkable decline in their welfare levels of living.

Based on the findings on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in different life-cycle stages, each household type showed a different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 in each life-cycle stage. Also,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differed between different types of households even though they were in the same life-cycle stages. That is, different types of households differed from one another in terms of incomes and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although they were in the same life-cycle stages. Taken together, household typology should be considered in classifying life-cycle stages and identifying resultant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which will enable financial goal setting and planning specific to each household. Moreover, considering household typology will facilitate the understanding of the most financially vulnerable type of households and life-cycle stages, which helps develop policy and educational measures.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based on the findings

aforementioned.

First, in terms of financial planning, financial planning programs need be developed with reference to not just traditional flows of life-cycle stages but also those stages in connection with household typology. Different types of households lead to different income levels and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even though they are in the same life-cycle stage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lassify life-cycle stages in financial planning and to consider household typology in identifying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Furthermore, financial planning programs need be complemented or developed in compliance with such household characteristic details.

From the perspective of education, prospective financial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for each type of household to set up appropriate financial plans across life-cycle stages. Likewise, retrospective education programs are needed regarding how to minimize a decline in welfare levels of living in life-cycle stages following sudden changes or vulnerability in financial structures including incomes or expenditures due to unexpected events such as divorce or bereavement as well as how to reset financial goals and how to distribute assets.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policy measures for the vulnerable class is needed first and foremost. Particularly, given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single-person or single-parent households prove to become financially more vulnerable than those of couples as they approach the maturity or middle-age adulthood stages. Undoubtedly, a range of policy measures for the vulnerable have already been implemented in diverse ways. Yet, stability in policy implementation should be guaranteed rather than a temporary policy with limited budgets. Also, long-term policy measures facilitating self-reliance are necessary in addition to simple supports for the vulnerable class.

keywords : Household Typology, Life Cycle Stages, Revised
Life Cycle Stages,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Financial Planning

Student Number : 2012-21515